
정책참고자료

2016-1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즐겁고 재미있는 수상레저의 첫출발은 안전	4
------------------------	---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유발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	7
-----------------------	---

3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10
----------------------------	----

4 교육부

학생 맞춤형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발표	15
-------------------------	----

5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 전파 중소기업에서 시작된다	18
-------------------------	----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벤처단지, 투자 유치 본격화	21
---------------------	----

문체부, 지역서점 활성화 위해 ‘서점온(ON)’ 구축	24
-------------------------------	----

7 농림축산식품부

-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27
-----------------------------	----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	41
---------------------------	----

8 환경부

미세먼지 원인규명_ 환경과학원 — 나사 대규모 대기질 조사	47
----------------------------------	----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창업 기본교육부터 착착	56
--------------------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가시적 성과 위해 더욱 빈틈없이 챙긴다”	58
--------------------------------	----

11 국토교통부

2020년까지 2조4천억원 추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69
------------------------------	----

12 해양수산부

봄철 어업질서 확립위해 정부합동 지도단속 실시	78
---------------------------	----

즐겁고 재미있는 수상레저의 첫출발은 ‘안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대책 조기시행 - 국민 눈높이 홍보, 주요활동지 안전관리 강화, 사업장 집중점검 등-

- # ‘15. 8. 3. 경기도 가평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땅콩보트’를 타던 20대가 물에 빠지면서 뒤따르던 모터보트에 부딪혀 사망
- # ‘16. 2. 25 인천 영흥도 진두항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T호 연료고갈로 표류
- # ‘16. 3. 2. 전남 장흥군 회진항에서 출항한 고무보트가 미역양식장 부이로프가 스크류에 걸려 구조요청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매년 증가하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작년보다 1개월 앞서 5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에서는 해상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등 단순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 안전점검 수칙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민 눈높이와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기본 안전의식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 또한, 레저면허 취득 및 갱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사례 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레저기구 활동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레저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 ‘개인 안전점검 독려’, ‘안전검사 안내’ 등 안전당부 문자(SMS)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성수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내수면 레저안전관리 주체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내·해수면 사업장과 주요활동지를 점검하고 해수면 레저사고 다발 해역에 경비정 집중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
- 레저활동자들이 가장 집중되는 7~8월에는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무등록 레저사업, 무면허 조종 등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김언호 수상레저과장은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수칙 이행과 안전점검 생활화 등 기본에 대한 철저한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성수기 도래에 대비하여 안전문화 확산, 수상레저사업장 관리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시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

□ 추진기간 : '16. 5월 ~ 9월 / 5개월 간 (5월 중 집중홍보기간 운영)

□ 현 황

- 수상레저 인명사고는 사업장에 집중되며, 그 중 내수면에서 주로 발생
- 최근 3년간 레저사고는 5~9월에 집중 발생하며, 해수면은 기관고장 등 표류사고가 대부분이고, 내수면은 피견인 기구사고가 대부분을 차지

→ 해수면은 단순사고 예방, 내수면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중점 안전관리 대책

- **(안전문화 확산)** 단순 표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수칙* 팸플렛 제작·배부,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활용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기관고장 예방 및 기초 점검방법
- **(사업장 관리강화)** 사업장 특별점검·민관합동점검 및 사업자·종사자 안전수칙 교육 강화로 사업장 이용객 인명사고 예방
- **(집중 단속·계도)** 최성수기(7~8월) 안전저해사범 집중 단속기간 운영, 무등록 사업, 무면허 등 안전 직결 위반사항 단속·처분 활동 강화
- **(유관기관 협력강화)**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합동점검팀 운영, 레저활동 집중지역 점검 및 문제점·개선사항 발굴 등 협업체계 구축

부패 유발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MOU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협약체결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사장),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성일환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원장)

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하여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처리, ▲사규 등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등에 대해 각 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익위와 각 기관은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위한 TF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도출된 성과관리·공유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앞으로 권익위는 협약 체결 기관의 사규와 정관을 제출받아 부패유발요인을 중점 분석하고 각 기관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각각의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사규와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관 별 중점 개선 분야 >

기 관 명	중점 개선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보상,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분야, 전세임대보증금 지급·보증 등 주거 복지사업 분야 등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한국가스공사	○ 해외사업 분야, 건설·발주 등 분야의 과도한 진입 장벽 및 제한, 계약관계에서 갑의 횡포 신고 및 제재 방안 마련 등
한국공항공사	○ 항공산업 R&D 및 해외수출사업 투명성 확보, 공항 임대시설 계약·관리의 투명성, 항공안전 확보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 회수의 부패 방지 등
사회보장정보원	○ 보육·사회서비스·국가바우처 사업 관련 재정누수 차단, 생계곤란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보화사업 계약 투명성 제고 등

□ 성영훈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권익위와 각 공직유관단체가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국민권익위원회(성영훈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사장), 한국공항공사(성일환 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원장))



인사말하는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6개 공직유관단체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 현황 : 19.7%('09) → 57.7%('14 상반기)

* 출처: 2014 국민권익 백서

▶ 공공기관 부채 현황 : 398.8조원('10) → 520.5조원('14) (148.3조원 ↑)

* 출처: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

-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

-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과 시행령이 4.29일에 동시에 시행됨.
 -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국무회의에서 의결(4.26일)되었으며
 -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부가기준,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
 - * (거짓, 부정하게 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5배 (타용도 사용) 보조금의 3배 (법령위반, 중앙관서의 처분위반) 보조금의 2배 (요건 미충족) 1배(100%)
 - 또한,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게 됨.

-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천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며 ('17.6월 시행)
 -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됨.
 -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였음.
-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보조금법 (‘16.1 / 시행 ‘16.4.29)	시행령	
	기존	개정 (‘16.4 / 시행 ‘16.4.29)
◇일몰제 규정 (제15조) *보조사업 존속기간 3년 설정, 만료시 연장평가	<신설>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규정(제6조) *제외대상 : 의무지출, 예타·재정 투자심사에 따른 계속사업, 포괄보조금 등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제26조의 3)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 업자는 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공시내용 :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 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보고서 등 ※부칙 : ‘17.6.1일부터 시행	<신설>	◇정보공시 대상 (제11조의 2)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정보공시 시기 (제11조의 2)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는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삭감한도 (제11조의 2) *정보공시 미이행 등으로 시정 명령 후에도 따르지 않는 경 우 보조금 50%삭감 가능
◇정산보고서 검증 (제27조) *보조사업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지자체 제외)	<신설>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제12조의 2)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 사업자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제27조의 2)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시행	<신설>	◇회계감사 방법 (제12조의 3)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보조금법 (’16.1 / 시행 ’16.4.29)	시행령	
	기존	개정 (’16.4 / 시행 ’16.4.29)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31조의 2) <수행배제 대상>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 교부받아 교부결정 취소 시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교부결정 취소(2회이상) *교부결정,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으로 교부 결정 취소(3회이상) *지급요건 미충족(3회이상) <수행배제 예외> *복지사업, 정부정책사업 대행으로 대체곤란시	<신설>	◇보조사업 수행배제 방법 (제13조의 3) *보조사업 수행배제, 지급제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하고 보조금위원회에 통보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제33조의 2) 1.제제부가금 <부가한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부과 <부가대상> *보조금 반환대상 2.가산금 <부가한도> *채납된 금액의 5%이내	<신설>	◇제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제14조의2) 1.제제부가금 <부가기준> *거짓 신청, 부정 500% *다른 용도로 사용 300% *법령 위반 등 200% *요건 미충족 100% 2.가산금 <부가기준>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채납금액의 2% (1주일 이내 납부시 1%) *1개월 경과 후 납부시 : 1개월 경과시 마다 2%에 1%씩 추가

보조금법 (’16.1 / 시행 ’16.4.29)	시행령	
	기존	개정 (’16.4 / 시행 ’16.4.29)
◇재산의 무단처분 제한 (제35조)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위배시 보조금 등에 대해 반환명령 가능	< 신설 >	◇재산의 무단처분 제한 (제15조) *반환명령시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 의무실시 (보조사업자가 비용부담 가능)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 공표(제36조의 2) *중앙관서는 부정수급 자등의 명단 등을 매년 3월31일까지 홈페이지 에 공표	< 신설 >	◇공표방법 (제17조의 2) *1년간 공표, 중대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1년 연장가능
◇신고포상금 (제39조의 2)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 에 신고,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가능	◇신고포상금 지급 (제18조) *1억원 한도 사안에 따라 차등산정 (별표 4)	◇신고포상금 지급 (제18조) *반환명령 금액의 30%내로 하되 2억원 이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발표

- ▶ 동아리 연계형 및 창의융합형 프로그램 운영
- ▶ 초등돌봄교실 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확대
- ▶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선정 및 명품 방과후학교 인증

□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에 따른 우려 속에서 지난 2011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서,
- 자유학기제 본격화와 교실 수업의 혁신, 학생 동아리 활성화, 돌봄교실 정착 등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실성 있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동 방안에서는 4대 영역(①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②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③초등돌봄교실 강화, ④방과후학교 지원 강화)으로 구분하여 9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우선,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영역별·수준별·무학년제 프로그램을 3월 시작과 동시에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학생들의 흥미·적성에 따라 정규수업 외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리와 연계한 “동아리 연계형 프로그램”이 개설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소질·적성과 진로 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사고력 향상을 위해 **STEAM, SW**프로그램을 창의·융합 선도학교(‘16. 50교) 및 SW 선도학교(‘16. 900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과 연계한 방과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일반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STEAM(<http://steamkofac.re.kr>) / SW(<http://www.software.kr>) 교재활용

- ‘15년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예술·체육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생활체육, 예술강좌** 등에 **돌봄 기능을 포함하는 시간연장형(1일 2~3시간) 프로그램**을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다.

※ 40분 단위 강좌를 3~4단위 운영(예시: 2~3단위 예체능 + 1단위 돌봄)

- 예술·체육 특목고 및 **중점·거점학교**의 우수 교·강사와 교육내용을 활용한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타교생에게 개방·운영하도록 권장하며, 신청학생 수가 적거나 개별지도 필요 등으로 개설이 어려웠던 소인수 강좌도 개설될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강사를 지원***한다.

* 5명 이상 참여하는 국악, 공예, 애니메이션, 연극, 스포츠 댄스 등 강사로 지원(‘16. 약400명)

※ ‘16년 예술중점학교 23교개, 거점학교 20개교, 체육 중점학급 61학급(31교), 거점학교 17개교

- 경쟁입찰 과정에서 수수료와 인건비 감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업체 위탁**의 경우 시·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이윤, 일반관리비,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강사인건비로 지급(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

- 교육부는 올해 신규로 농어촌, 저소득층, 다문화 밀집지역에 방과후 학교 강사 1,000명을 지원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돕는다.
※ ('16.) 강사 1,000명 신규 지원(강사료, 교통비 등 154억)
- 농산어촌 학교에서 ICT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및 원격교육 방식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 2016. 정책연구. (가칭) 'ICT를 활용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 아울러,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교육기부 자원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상 매칭(www.teachforkorea.go.kr) 기능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초등 돌봄교실 강화 】

- 돌봄교실은 '15년 24만 명에서 '20년까지 약 26만 명으로 약 2만 명을 확대 수용하고, 돌봄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 맞벌이 학부모 등의 돌봄교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학년도부터 활용하기로 하였다.
 -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활동을 발전시켜 대학생 봉사자 등이 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와 멘토-멘티 팀을 구성하여 예체능프로그램에 이어 학생의 특성에 맞게 보충활동*을 돕는 튜터 방식을 도입한다.

* 대학생과 함께하는 동네벽화그리기, 난타반·탈놀이반 등 참여형 프로그램, 악기연습 멘토링

※ ('16) 돌봄교실 대학생 동아리 봉사단 170개 지원(5억원)

-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맞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협의회**를 활성화한다.
-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적극 독려하고, 올 상반기에 ‘**지역돌봄 컨설팅 안내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강화 】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전국 140개)와 시·도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컨설팅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시·도별 퇴직교원, (학부모)봉사자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 근로장학생 (‘16) 1,000명 → (‘17) 4,000명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프로그램 보조 등)
- 시·도교육청 평가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 학생·학부모 서비스 만족도를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한다.
 -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15) 참여율(1점) → (‘16) 참여율(1점) 및 만족도(1점)
- 다양하고 질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교를 선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100대 방과후학교**로 시상하고, 3회 연속 선정시 **명품 방과후학교**로 인증하여 담당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교육부는 이 활성화 방안이 일선 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박람회('16.9.22.)에서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을 보완하여 우리 교육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

2016. 5



[방과후학교지원과]

차 례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주요성과 및 한계	3
III. 추진방향	5
IV. 과제별 추진계획	6
1.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6
1-1.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6
1-2.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8
1-3.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제고	9
2.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10
2-1.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수강여건 개선	10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여건 개선	11
3. 초등 돌봄교실 강화	12
3-1. 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12
3-2. 돌봄교실 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확산	13
4.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14
4-1.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내실화	14
4-2.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15
V. 추진 일정	16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등 핵심 역량을 키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응하고 학교 기능을 강화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필요

-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토론, 실험·실습 및 프로젝트 등 학생참여형 수업혁신,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시행 등 학교 현장의 발전적 변화에 따라 학생 주도적 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 증가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등

□ 시대 변화와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새로운 직종, 신산업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회와 기업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있는 인재 요구

<고교생 희망직업 다변화 추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호도 4% 이상)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2010년	교사 (13.4)	회사원 (7.0)	공무원 (6.2)						
2012년	교사 (9.3)	회사원 (7.6)	공무원 (4.7)	연예인 (4.3)	간호사 (4.2)	공학 엔지니어 (4.1)	의사 (4)		
2015년	문화·예술 스포츠 (15.9)	교육 (10.2)	보건복지 종교(8.5)	공학전문가 (6.9)	자연과학 인문사회(5.9)	경찰 소방 보안 (4.8)	경영, 회계 사무직(4.2)	조리서비스 스직 (4.1)	정보통신 전문가(4.1)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요구에 부응하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수요 확산

□ 방과후학교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학교 자율화 조치('08.4.)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방과후학교 업무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필요
-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월평균 3.4만원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참여율 및 프로그램 수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 방과후학교 도입·발전

- 5·31교육개혁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 제안 ('95.5)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전면 도입 ('06.2)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전국 17개) 시범운영 ('07.5)

□ 방과후학교 업무 지방이양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 지방이양 ('08.4)
-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 및 방과후학교·돌봄 박람회 개최('09.9)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수립 ('11.7)
 - ※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초등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등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 추진 ('11. ~ '15.)
 -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 나이스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시스템 개통, 시도별 자율 운영 ('11.)

□ 초등돌봄교실 확대

- 박근혜 정부 공약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추진 ('13.)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14.),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운영 ('15.)
 - ※ ('13)5,784교(7,395실) 16만명 →('14)5,972교(11,780실) 22만명→('15)5,972교(12,380실) 24만명
-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개편·운영 ('16.3.)
 - ※ 온라인 수강신청, 지원금·통계·강좌·회계·강사 관리 등 편의성 제공

□ 방과후학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전문가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16.3.~4.)
- 현장 교원 대상 의견수렴('16.4)

II. 주요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업성취 향상, 특기적성 개발 등 실질적 교육격차 완화

* ('10년) 1인당 30만원, 약47만명 지원 → ('15년) 1인당 60만원, 약55만명 지원

- '15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 대비 연평균 406천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했으며, '14년 대비 절감액 5.3만원 증가

<15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성균관대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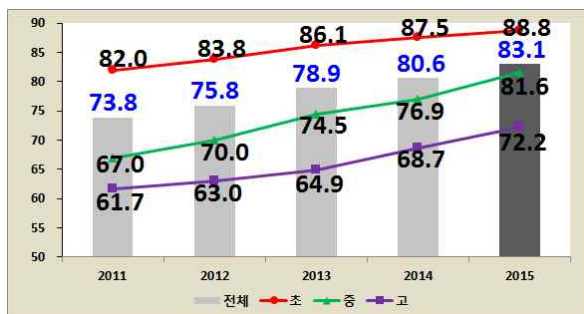
(단위: 연간, 만원)

구 분	2015년			'14년 절감액	'14년 대비 '15년 절감액
	참 여(A)	미참여(B)	15년 절감액 (B-A)		
전 체	260.2	300.8	40.6	35.3	5.3
초등학교	246.4	298.3	51.9	58.9	-7.0
중 학교	297.3	337.1	39.8	54.1	-14.3
일 반 고	291.7	328.9	37.2	13.0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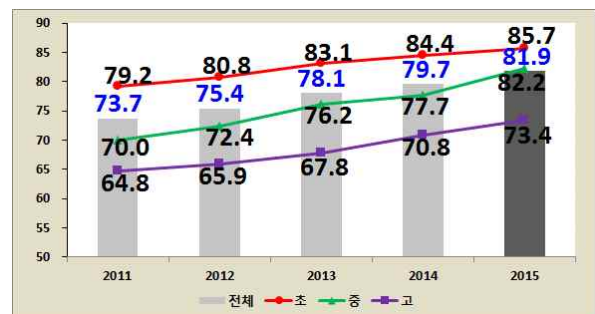
□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증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년 지속 증가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 ('14) 80.7점 → ('15) 83.1점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응과 만족도 높음

※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14) 92.5% → ('15) 94.8% / 2015 정부 핵심정책 평가 1위 ('15.11.)

< 한계 >

□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

- 방과후학교 전체 참여율은 '15년 57.2%(초60.2%, 중40.8%, 고67.2%)로 전년대비 2.1%p 감소하였으며, 특히 선행학습 금지 조치 이후('14.9) 중·고등학교의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이 크게 감소(중 9.0%p, 고 8.4%p)

※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수강생 중 43.4%가 수강 중단 또는 변경하였고, 그 중 72% 이상이 사교육으로 전환 ('1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부족

- '15년 예체능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1.8%p 증가하였으나, 예체능 사교육비가 초 5.6%p, 중 11.9%p 증가*

* 예체능 사교육비 : 초 ('14) 7.9만원 → ('15) 8.4만원/ 중 ('14) 2.2만원 → ('15) 2.5만원

-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생의 소질·적성개발이 강조되면서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르지 못함

□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증가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강사 및 위탁 업체선정, 수강료 환불 등 회계관리, 만족도 평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
-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충원이 어렵고, 교원은 업무를 기피하며 학교장은 방과후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등으로 부담 호소

Ⅲ. 추진방향

학생 중심의 행복한 방과후학교

추진 목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4대 중점과제	실행과제
①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1-2.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1-3.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제고
②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2-1.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수강여건 개선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여건 개선
③ 초등 돌봄교실 강화	3-1. 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3-2. 돌봄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발굴확산
④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4-1.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내실화 4-2.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IV. 과제별 추진 계획

1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영역별·수준별 프로그램 개설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12월) 전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사, 수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로 영역별, 수준별, 무학년제로 다양하게 운영
 -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 흡수
 - 교육청별로 과학 등 중점·거점학교의 전문성 높은 강사 및 교육내용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인근 학교 학생의 참여를 지원
 - 수요가 높은 인기강사 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 연장 가능
- 기초·탐구교과 영역의 내용체계와 핵심요소를 고려한 수준별·단계별 프로그램* 및 학생의 흥미, 적성, 장래희망, 학습이력에 따른 맞춤형 무학년제 프로그램 개설·운영

* 청주 산남고 방과후 영어, 분야별로 수준별 편성 : (듣기)영어뉴스 청취, (말하기)원어민 영어회화, (읽기)세계로 웅비하는 시간·영어번역, (쓰기)창의력을 키우는 에세이

※ 학생 수요에 맞는 교과 심화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추진

□ 동아리 연계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 전통적인 교과·특기적성 중심 프로그램 편성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흥미·적성을 반영한 동아리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적인 프로그램 개설

- 수업 연계형 동아리 또는 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등 교육과정 외 운영되는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이 원할 경우 대학생 멘토링, 외부강사 등 지원
- 특히, 다양한 교과 관련 주제를 학생이 선택하여 자료수집-분석-결과발표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 동아리 연계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창의융합형 사고력 향상 등 신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정규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실험·실습,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방과후학교에서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STEAM**(<http://steam.kofac.re.kr>), **SW프로그램**(<http://www.software.kr>)을 활용하여 **창의·융합 선도학교**('16. 50교), **SW선도학교**('16. 900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일반 학교에 확산
 - ※ 초등 「생각쑥쑥 SW」, 「뚝뚝뚝뚝 코딩 공작소」, 중등 「프로그래밍과 나」,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등 기 개발 교재를 사용하고 SW연수 이수 교원('15. 5,719명) 등 활용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주제선택·예술체육·동아리)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진로 개발 및 심화학습 기회 제공
 - 자유학기(중1·2) 활동 이후 학생이 선택한 관심 분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서 운영
 - 특히, 고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NCS기반 교육과정**을 활용한 실기·실습 위주 **직업체험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 (충북 반도체고) 인근 중학생 대상 반도체·상업·가사계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를 체험하지 못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아탐색** 및 **미래핵심역량**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미래 핵심역량 키우기 프로그램 (예시),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과제	프로그램 내용	시간
미래이해	· 미래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 미래체험	8
나 이해	· 성취역량인성(회복탄력성) 검사 및 교육	10
역량교육	· 미래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 방법 습득 캠프	6
미래토론	· 미래 사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집단 지성 형성	6
동아리활동	· 미래진로 동아리 구성 및 전문 교육, 공동작품 제작	12
미래구현	· 내 꿈 담은 미래마을 건설	10

1-2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형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 생활체육, 예술 강좌 등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시간 연장형(1일 2~3시간)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 ※ 40분 단위 강좌를 3~4단위 운영(예시: 2~3단위 예체능 + 1단위 돌봄)
-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수요에 따라 지역 시설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예술·체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활성화

- 신청학생 수가 적어 개설이 어렵거나 개별지도가 필요한 소인수*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5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악, 공예, 무용, 애니메이션, 문학, 연극,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방과후학교 강사로 지원('16. 400명)
- 예술·체육 특목고 및 지역별 중점·거점학교에서 교사 및 강사 자원을 활용하여 타교생 대상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장

- ▶ (충북 영동초) 인근 영신중, 부용초와 공동으로 사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61명 참여
- ▶ (인천여중) 예술중점학교로서 주말 오케스트라프로그램에 69명 참여(인근 초중학생 13명)

※ '16년 예술중점학교 23교개, 거점학교 20개교, 체육 중점학급 61학급(31교), 거점학교 17개교

- 예체능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및 교육기부 지역센터(카이스트, 한동대,

우석대) 등과 연계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지원

※ ('15년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함성소리(토요프로그램 24개), 알락달락(평일 16개), 쓱쓱캠프(방학 18개), 초1,055명, 중1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 유관기관·단체의 다양한 학교 밖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방학 중에 마을학교 형식으로 프로그램 위탁운영 가능

※ 경기교육청('16). 금·토요일 비영리예술단체 경기뮤지컬 학교에 예술경영 프로그램 위탁 운영, 전남교육청('15), 주중 저녁 및 토요일, 귀촌주민 중 강사 공모, 마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1-3.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제고

□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우수 프로그램 확산

-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
 - ※ 외부 강사 차기 계약 시 만족도 90% 이상인 강사에 대해 재계약 가능
- 시·도별로 만족도가 높은 우수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방과후학교 포털 및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

□ 강사의 질 관리 강화

- 아동학대·성희롱 및 안전사고 예방, 학생지도 및 관리 등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강사 질 관리 강화
 - ※ ('16)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17) 강사대상 원격교육 실시
- 방과후학교 대상('16.9월)에서 수상한 우수 강사는 학생 관리 및 동기 유발, 수준에 맞는 강좌 진행 등 연수 콘텐츠 개발시 활용
 - * (시상 분야) 우수 학교·프로그램, 우수강사,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사회 우수기관, 우수참여기업
- 강사계약서에 정치적 중립성 내용을 포함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관리 강화

- 적정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위탁업체 소속의 우수 강사가 이탈하지 않도록 안정적 인건비 지급
 - ※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이윤, 일반관리비,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강사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안내(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실태조사* 실시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업체위탁 개선방안 마련('16.12월, 가이드라인에 반영)
 - *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강사 인건비 하락 및 프로그램 질 저하 여부 등
- 단위학교와의 계약사항 미 준수 시 업체에게 시정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1.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수강 여건 개선

□ 농어촌·저소득층·다문화 밀집지역 강사 지원

- 농어촌·저소득층·다문화 밀집지역 학교의 강사료 지원을 통한 기초 학력 향상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16.) 강사 1,000명 신규로 지원(강사료, 교통비 등 특교 154억 지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전 삼성초, 중국 유학생(우송대)을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체제 개선

- 기존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한정되었던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과정 내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방과후학교 개강(3월) 후 교육비 지원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는 심사 완료 시(5월) 까지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에서 수강료 인출 유예 등 배려

□ 교육기부 자원 발굴·활용

-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 내 방과후학교 코너를 신설('16.4)하여 지역별·대상별로 교육기부자와 학교 간 매칭 활성화

- 교육기부센터(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부 기관 및 개인 발굴, 학교 매칭 지원

- 개인교육기부단을 시간분할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시범운영('16. 5개교)

※ 삼성, 학기·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15년 중학생 14,339명, 대학생 강사 4,142명 참여), 캠프, 저소득층을 위한 배움터 공부방 운영('15년 초·중학생 300명 지원, 대학생강사 35명 참여)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여건 개선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 단위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강좌를 **학교 간, 학교급별 연합**으로 개설하여 소규모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 남양주교육지원청, 거점학교(예봉초, 평내초, 용신초)선정하고 한국화, 현대무용, 가야금 병창, 영어, 난타 등 프로그램 운영, 인근 지역의 28개교 학생 참여
- 지자체, 유관기관의 **우수강사**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강좌개설, 지역 간 연계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 ※ 제천-미디어(영화음악), 충주-가야금, 진천-도예, 영동-국악, 옥천-문학(글짓기) 등
- 농어촌 지역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역 간 교류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학생 이동수단 지원 권장**
 - ※ 강원평창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종료 후 통합택시 운영, 5개교 128명

□ ICT를 활용한 '(가칭)농어촌 Smart 방과후학교' 도입

- 농어촌 학교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기 기반 **온라인 콘텐츠*** 및 **원격교육 활용**** 방과후학교 도입 추진
 - ※ ('15년) ICT 기기(스마트패드) 보급학교 수 : 4,008교
 - * 수학·과학, 진로체험, 문화·예술, EBS, SW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 ** 양방향 소통 형태의 원격 외국어(원어민) 및 교과 강의 제공 체제 마련
- '농어촌 ICT 활용 수업연구회'(15개 시·도 총 50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가칭)농어촌 **Smart 방과후학교**」 모델 개발
 - ※ 2016. 정책연구. (가칭) 'ICT를 활용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 ※ ('17) 17개교(연구학교) → ('18) 40개교 → ('19) 60개

3-1 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 돌봄 필요 학생에 대한 돌봄교실 수용 개선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 수요에 대응하여 '15년 24만 명에서 '20년까지 약 26만 명으로 약 2만 명 추가 수용
- 1~2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학년 맞춤형 서비스 완성

* 「돌봄교실 놀이중심 특기적성 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보급 ('16.8.)

※ 초등돌봄교실: ('15) 1~2학년 20.9만, 3~6학년 3만 → ('16) 1~2학년 21.1만, 3~6학년 3.2만

- 유휴교실 부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겸용교실 환경개선 수요를 점진하여, 장기적으로 전용교실 운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전환 추진

※ ('15) 겸용교실 2,402실, 전용교실 8,482실

□ 학교 밖 돌봄 인프라 연계 활용

- 맞벌이 가정 등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밖 돌봄 지원인력(대학생 돌봄 봉사단, 근로장학생, 학부모 봉사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돌봄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모델 발굴·확산
- 학교와 지역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간 연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돌봄협의회 활성화

※ 울산 옥성초,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소셜 네트워크 협의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축구교실', 지역도서관 '한자교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

-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전담사 대상 원격교육, 지역 단위 집합교육 제공 등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초등돌봄.com)」 필수 15차시(돌봄 전반), 선택 6차시(상담·놀이·안전, 택1) 제공

- 교육(지원)청별 전담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병·휴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미담사례 발굴·포상 등 사기 진작

※ (가칭) Best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 우수사례 발굴 포상 (부총리 표창, 9월)

3-2 돌봄 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예체능 (체험)프로그램 확장

-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가 방과후학교 강사와 멘토-멘티 팀을 구성,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어 학생 특성에 맞는 보충활동* 수행

* 대학생과 함께하는 동네벽화그리기, 난타반·탈놀이반 등 참여형 프로그램, 악기연습 멘토링

< 2016 대학생 돌봄봉사단 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

- ▶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 동아리(5인 이상) 170개, 4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운영, 동아리 활동 경비 등 실비 지원
- ▶ 예체능활동, 놀이중심활동, 자기주도활동 분야별 시범운영('16. 5월 30개 동아리 매칭)

- 교실 밖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녁 돌봄·방학 돌봄 운영 시간과 연계하여 예체능 활동을 집중 운영하는 돌봄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자유학기제 체험처 및 수영장, 미술관(작품 관람), 박물관, 지역문화재단·사회복지관(상담, 적성 진단), 청소년수련관, 대학, 도서관, 수목원(생태학습) 등

□ 돌봄교실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 저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학생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확산

※ 직업체험(디자이너, 마술사, 운동선수 등), 알파벳 영어-전래놀이-뽀빠가꾸기 패키지 등

- 지역사회 재능 기부자, 대학생 근로장학생, 인근 중고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스포츠 및 악기 연습 등을 돕는 활동 활성화

< 소규모 그룹 활동 지원 사례 >

- ▶ (강원 청대초) 교사봉사단 재능 기부를 연계하여 ‘대학생 지식 멘토링 캠프’는 방학중 돌봄교실 참여학생(1~4학년) 대상으로 놀이수업, 특기적성교육, 소규모그룹 기초학습 지도
- ▶ (세종 전의초) 교사와 예술 강사(문체부 지원)가 멘토-멘티 팀을 구성하여 돌봄교실 예술 체험 특화 프로그램(난타반, 전래놀이(탈춤)반, 교육연극반) 운영 및 문화공연 상시 체험 실시

4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4-1.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내실화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강화

- 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 및 정보부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하는 학교에 매칭 지원
 - 창작·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미래 핵심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제공
- 시·도별로 단위학교 수요에 따라 퇴직교원, (학부모) 봉사자 인력풀 구성·운영 및 대학생 근로장학생 선발·활용으로 업무경감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관련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요청 시 매칭
- ※ 근로장학생 ('16) 1,000명 → ('17) 4,000명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프로그램 보조 등)
- 전문가 및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권역별 방과후학교 포럼 개최로 정책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 및 현장과의 소통 확대
 - ※ 권역별 포럼 개최: 4개 권역(수도·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별 1회, 총 4회

□ 나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편의성 제고

-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개편('16.3월 개통)으로 수강신청, 수강료 지급, 출결·통계·지원금 관리 등 업무 편의성 제고
 - 대국민서비스 운영으로 프로그램 개설 현황 및 운영계획, 학생의 수강장좌 및 출결 상황, 강사 정보 등 조회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 이용 편의를 위해 학교별 돌봄교실 운영

현황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구축

-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학부모 참여 신청 및 조회), 운영 정보 제공 및 돌봄교실 업무관리 기능 등 양방향 정보망 개발(16)

※ 사업자 선정 (~5월) → 시스템 개발 (~11월) → 개통 (12월)

□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홍보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학교 등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를 선정·시상하고, 3회 연속 선정 시 방과후 명품학교로 인증하고, 업무 담당 교원에 시·도교육청별 인센티브 제공 권장
 -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례, 온라인 신청 등 개선사항을 중점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 교육부 SNS 등 온라인 채널, PCRM, 전광판, 간행물 활용 홍보 실시

4-2.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지원 컨설팅단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 문화예술·체육단체, 대학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 시·도별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컨설팅을 통해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및 현장의 문제 해결 지원
 - 특히, 관내 학교의 프로그램 및 수강료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육적인 고액 프로그램 사전 예방 및 지도·감독 철저
- ※ 인천교육청, 연 1회 10만원 이상 수강료 전수 조사 및 지도·감독

□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 평가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도 학생·학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를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 제고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15) 참여율(1점) → ('16) 참여율(1점) 및 만족도(1점)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정보공시(학교 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 현황 등 세부내용 공개
- 방과후학교 사업비 및 돌봄교실 예산 확보 및 관련 업무 전담인력 확충 지원

VI. 추진 일정

- ☐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발표
- ☐ 시·도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6.5)
- ☐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 및 박람회 개최('16.9)
-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수정·보완('16.11)
- ☐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계속)

창조경제 실현, 전파 중소기업에서 시작된다!
- 미래부,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전파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산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파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파·방송 관련 중소기업에 총 6억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파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한 응용 제품뿐만 아니라 무선 주파수(RF) 부품, 안테나, 계측기 등 전파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신종균)를 통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 무선중계기용 무선주파수(RF) 부품,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디지털 무전기, 실시간 무선 모니터링 일회용 체온계 등 최종 14개 기업의 시제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번 선정된 14개 기업은 기업당 평균 약 4,286만원의 비용을 지원 받아 12월 중으로 시제품을 완성 및 최종 평가를 받게 되며,

-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4개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비용을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 또한, 개발과정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기관인 '전파 엔지니어링 랩(<http://www.rflab.or.kr>)'을 통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한 '13년에 지원했던 17개 기업의 시제품 관련 매출이 약 44억원에 달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전파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붙임]

2016년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구분	기업명	제품명
1	(주)굿텔	기지국 용량 증가시키는 듀얼밴드 듀얼빔 안테나
2	주식회사 동연시스템	B-CDMA, 영상처리 융합 드론용 융합모듈
3	알티텍	자기공진기술 적용 다수 스마트폰 충전 송신기
4	삼영셀레트라	스마트폰 연동 디지털무전기(smartDMR)
5	(주)씨앤넷	WFS, FS 음향기술 WiFi통신 적용 보급형 오디오바(AudioBar)
6	주식회사 아토웨이브	디지털 신호처리부 내장 초소형 도플러 레이더 센서모듈
7	(주)엠엘테크놀로지스	Smart HPIMD 측정기
8	이노넷(주)	방송신호 간섭제거 TunableTVWS 장치
9	(주)지피	레이더용 S-band 정합회로 내장형 전력 증폭기
10	(주)초이스테크놀로지	실시간 무선 모니터링 일회용 스마트 체온계
11	코모텍 주식회사	E-band 무선중계기용 RF모듈
12	포은	산업용 무선스위치
13	(주)피플앤드테크놀러지	실내외 측위 및 센서 추가가능 모듈형 복합센서 비콘
14	주식회사 휴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전파혼신탐지 시스템

※ 가나다 순 정렬

문화창조벤처단지, 투자 유치 본격화

- 전문투자자에 이어 국민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열려 -
- 개소 4개월만에 53억 투자유치, 클라우드 펀딩 1호 5월 론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개소 4개월 만에 53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이 5월에 대중 투자(클라우드 펀딩)를 개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인 엠랩(대표 홍의재)과 문화공작소 상상마루(대표 엄동열)는 셀(cel) 비즈센터의 금융지원 기관인 '오픈트레이드'를 통해 5월 중에 벤처단지 내 첫 번째 대중 투자(클라우드 펀딩)를 개시한다. 엠랩과 상상마루는 이를 통해 각각 1억 원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중 투자(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할 경우에는 융합콘텐츠펀드(450억 원, '16년)와 대중 투자(클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100억 원, '16년) 등 매칭 펀드를 통한 자금 확보 기회를 얻게 된다.

엠랩은 누리소통망(SNS) 기반의 동영상 태깅 서비스* 플랫폼인 '에스티유브이(STUV)'를 개발하고 있으며 4분기에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문화공작소 상상마루는 수학융합형 가족 뮤지컬 '켓조르바'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하고 있다. 앞으로 켓조르바 캐릭터를 활용한 교구와 전자출판, 쌍방향(인터랙티브) 체험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 동영상 태깅 서비스: 동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감상 등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이외에도 오디오 콘텐츠 제작 기업인 미디어피쉬와 첨단 융·복합 공연

‘카르마’의 제작 기업인 올댓 퍼포먼스 등 다수의 셀(ce) 멤버기업들이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 4개월 만에 전문투자자로부터 53억 원 신규 투자 유치

한편,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들은 단지 개소 4개월 만에 전문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5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모바일 인증과 결제 솔루션 개발 기업인 모비두는 홍콩의 지메이코리아로부터 3억 원, ‘오늘 뭐먹지?’로 널리 알려진 그리드잇은 실리콘벨리의 빅베이슨캐피털 등으로부터 6억 원, 모던한은 전통문화 소재의 디자인 상품으로 센트럴투자파트너스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휴대용 전자음악 스튜디오 ‘몬스터 고디제이’의 제작 기업인 제이디사운드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 홍당무, 소셜 라디오 서비스 기업인 마이쿤 등 투자상담회에 참여한 셀(ce) 멤버십 기업 9개사가 투자 기관 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설 무료개방 등 국민의 참여로 성장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한편,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단지의 전문 프로젝트룸과 버추얼센터 등을 구비한 콘텐츠 제작시설인 9층 셀(ce) 팩토리와 금융, 회계, 법률, 해외진출 등 일괄(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16층 셀(ce) 비즈센터를 4월 25일(월)부터 무료로 개방했다.

또한, 4월 11일(월)에 개관한 벤처단지 내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는 방문자들에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한류 체험과 의료관광 체험 등 종합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한식 문화 전시와 체험·구매 등 한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문화창조벤처단지의 16층 셀(ce) 비즈센터뿐만 아니라 전문 제작 시설인 9층 셀(ce) 팩토리도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셀(ce) 멤버기업들이 클라우드 펀딩 등 대중의 투자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누구나 벤처단지에서 콘텐츠 창작과 한식, 한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국민의 참여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지역서점 활성화 위해 '서점온(ON)' 구축 운영

- 전국 2천여 개 지역서점 위치, 규모, 행사 등 지역서점 포털 정보서비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7일(수)을 기점으로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인 '서점온(서점ON, www.booktown.or.kr)'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할인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융성카드 발급과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점온'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대표 박대춘, 이하 서점연합회), 출판유통 진흥원(원장 김종수) 등과 함께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축했으며, 지난달 29일(화)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서점온'은 지역서점의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로서 전국 2,000여 개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역서점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과 연동하여 76여 개 중대형 지역서점의 보유도서 재고정보와 판매정보도 제공한다. '서점온'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독자들은 '서점온'을 통해 지도 또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주변 지역서점의 명단과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안내, 문화활동, 인기도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서점온'의 메인페이지 위 칸에 특정 책의 제목을 입력하면 그 책의 재고가 있는 중대형 서점의 명단과 위치, 재고 수량,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해당 서점은 '서점온'을 이용해 도서의 판매와 재고 현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서점 간 공동구매, 서점과 도매상·출판사 간의 자동 주문을 할 수 있다. 출판사도 '서점온'을 통해 자사의 발간도서를 홍보하고 서점에 유통되는 도서의 재고와 판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점온'은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의 확장 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연락처뿐만 아니라 각 서점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지역서점의 문화활동과 독서활동, 지역 사회와의 협업활동 등도 '서점온'에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등에 '서점온'을 안내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서점온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서점의 보유도서 정보는 전국 중대형 76개 서점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 서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점온'은 앞으로 지역서점의 판매정보 공유, 도서 공동구매, 온라인매장 구축 등 지역서점 정보화 및 마케팅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지역포털사이트 서점온(ON) 안내 포스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www.booktown.or.kr

지역서점 포털사이트

서점ON

지역서점이
응답했다!

 가까운 서점으로 GO! GO!

- 전국 서점 명단,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한번에~
- 내 주변 서점의 실시간 재고 현황, 지역서점의 행사, 이벤트 정보

 도서정보가 한 눈에~

- 도서 검색은 기본, 중소출판사의 신간 정보까지
- 지역서점만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분야별 베스트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간의 의견교환이나 도서정보 교류
- 스크랩기능으로 내게 맞는 도서정보나 행사 이벤트 정보 조회
- 저자와의 대화 코너를 통해 저자와의 생각 공유

 지역서점 활성화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s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가족여행으로 추억을 공유하며 자연과 전통·교육체험 현장으로 떠나 보세요

《 주요내용 》

- ◇ 농촌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한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 목장, 휴양림, 숲체험, 경관명소, 수변(해변)산책, 생태공원, 역사유적지, 전시관(박물관)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

지 역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경 기	설봉공원→이천세라피아→서경들미울→외우목장→폐지박물관→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승마클럽→공룡수목원
강 원	구룡사→학곡마을→섬강배향골칠봉매화마을→원주돼지문화원→원주레일파크→간현유원지
충 북	국악체험촌→와인삼겹살거리→와인코리아→월류봉→원촌리체험마을→반야사
충 남	솔피성지→백석울미마을→이미미술관→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삼교호합상공원→왜목마을
	알프스마을→천장호출렁다리→칠갑산천문대
전 북	만일사→순창고추장익는마을→장류박물관→로컬푸드특산품점→순창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
전 남	드라마촬영장→순천만국가정원→낙안읍성→뿌리깊은나무박물관→순천꽃마차마을
경 북	삼강주막마을→회룡포마을→예천진호국제양궁장→예천온천→예천곤충생태체험관→출렁다리마을
경 남	남해대교→충렬사→설천양모리목장→유배문화관→탈예술촌→기천다랭이암수비위→두모마을→이순신영상관
제 주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제주43평화공원→노루생태공원→절물자연휴양림→시려나숲길→에코랜드

-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우리나라 좋은마을 (웰촌, www.welchon.com)” 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촌 주변의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오감충족을 통하여 가족들의 행복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10선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목장체험, 승마체험, 휴양림, 숲체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수변 및 해변산책, 갯벌체험,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관광·홍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특히, 이번 농촌관광코스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관광지, 체험마을, 돼지박물관 등)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서경들마을 등 8명소, 강원도는 학곡마을·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 등 6명소, 충북은 원촌리체험마을 등 6명소, 충남은 백석올미마을 등 6명소, 알프스마을 등 3명소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은 순창고추장익는마을 등 6명소 전남은 순천꽃마차마을 등 5명소, 경북은 삼강주막마을·회룡포마을·출렁다리마을 등 6명소, 경남은 두모마을 등 8명소, 제주는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등 6명소로 구성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자원 및 전통·체험교육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과 추억을 느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식과 교육의 두가지 측면을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다채로운 체험을 해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 (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16년도에는 계절별·월별로 관광테마를 선정하고 농촌휴양체험마을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16년 5월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경기 이천 서경들마을코스

설봉공원→이천세라피아→서경들마을→와우목장→돼지박물관→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승마클럽→공룡수목원



강원 원주 학곡마을코스

구룡사→학곡마을→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원주돼지문화원→원주레일파크→간현유원지



충북 영동 원촌체험마을코스

국악체험촌→와인삼겹살거리→와인코리아→월류봉→원촌리마을→반야사



충남 당진 백석울미마을코스

솔외성자→백석울미마을→아미미술관→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삼교호합상공원→왜목마을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코스

알프스마을→천장호출렁다리→칠갑산천문대



전북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코스

만일사→순창고추장익는마을→장류박물관→로컬푸드특산물점→순창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



전남 순천 꽃마차마을코스

드라마촬영장→순천만국가정원→낙안읍성→뿌리깊은나무박물관→순천꽃마차마을



경북 예천 삼강주막마을, 회룡포마을, 출렁다리마을코스

삼강주막마을→회룡포마을→예천진호국제양궁장→예천은천→곤충생태체험관→출렁다리마을



경남 남해 두모마을 코스

남해대교→충렬사→설천양모리목장→유배문화관→탈예술촌→두모마을→가천다랭이암수바위→이순신영상관



제주 제주 명도암코스

명도암참살이마을→제주4.3평화공원→노루생태공원→절물자연휴양림→사려니숲길→에코랜드



우리나라 좋은 마을
welchon

| 이 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미지 및 내용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1. 경기도 이천시 「서경들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설봉공원 이천세라피아 서경들마을 와우목장 돼지박물관 이천농업테마공원 이천승마클럽 공룡수목원

전통을 느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 및 이색적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가족여행코스



출처 : 서경들마을

서경들마을



출처 : 이천문화관광

설봉공원



출처 : 이천농업테마공원

이천농업테마공원



출처 : 덕평공룡수목원

공룡수목원

[서경들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전통장류체험 계절농산물수확체험 음식만들기(묵, 손두부, 전통주, 화전, 파전, 꽃비빔밥 등)
- * 먹거리 : 청국장, 보쌈, 두부전골, 닭도리탕, 서경들정식(쌈밥) 등
- * 연계관광지 : 설봉공원 이천세라피아 와우목장 돼지박물관 이천농업테마공원 등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327-7
- * 예약 및 홈페이지 : 031-634-1089 / <http://www.seogyeong.kr/>

2. 강원도 원주시 「학곡마을·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구룡시탐방→**학곡마을**→**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원주돼지문화원→원주레일파크→간현유원지

농촌의 다양한 체험 및 자연생태자원, 레저자원
어우러진 코스를 즐기는 가족여행



학곡마을

출처 : 학곡마을



출처 : 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
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



구룡사

출처 : 구룡사



원주레일파크

출처 : 원주레일파크

[학곡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농작물심기 및 수확체험 하수남천 물놀이 꽃마차타기 노송씨앗받기체험
짚풀공예체험 향토음식만들기 체험 테마로드 탐방체험 등
- * 먹거리 : 곤드레밥, 산채비빔밥, 시골국수, 올챙이국수, 바비큐, 시골밥상(정식)등
- * 연계관광지 : 구룡사, 원주돼지문화원, 원주레일파크, 간현유원지 등
-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구룡사로 7
- * 예약 및 홈페이지 : 010-5377-7748 / <http://cheongcheong.modoo.at/>

[섬강매향골칠봉매화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농산물 심기 및 계절농산물수확 체험, 두부만들기, 송어잡기 등
- * 먹거리 : 닭도리탕, 시골밥상(정식) 등
- * 연계관광지 : 구룡사, 원주돼지문화원, 원주레일파크, 간현유원지 등
-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칠봉로 358-85
- * 예약 및 홈페이지 : 010-4680-4875/ <http://www.sgmh.kr/smain.html>

3. 충청북도 영동군 「원촌리체험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국악체험촌→와인삼겹살거리→와인코리아→월류봉→원촌리체험마을→반야사

국악, 먹거리, 자연경관, 농촌체험을 통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가족여행코스



출처 : 원촌리체험마을

원촌리체험마을



출처 : 영동문화관광

월류봉



출처 : 국악체험촌

국악체험촌



출처 : 와인코리아

와인코리아

[원촌리체험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포도따기, 들국화차 만들기, 국화주 만들기
- * 먹거리 : 시골밥상
- * 연계관광지 : 국악체험촌, 월류봉, 반야사, 와인코리아 등
-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1길 4
- * 예약 및 홈페이지 : 010-5448-6933 / <http://blog.naver.com/smo7834>

4. 충청남도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솔피성지→백석올미마을→아미미술관→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삼교호함상공원→왜목마을

전통과자, 일출·일몰, 동양최초 함상공원, 성지,
유네스코문화유산을 즐기는 오감만족 가족여행



출처 : 백석올미마을

백석올미마을



출처 : 당진함상공원광공사

삼교호함상공원



출처 : 아미미술관

아미미술관



출처 : 솔피성지

솔피성지

[백석올미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매실한과체험 올미약과체험 올미초콜릿체험 천연비누, 양초만들기, 염색체험(손수건), 매실짱아찌, 김장체험, 짬뽕공예체험 등
- * 먹거리 : 계절밥상, 보쌈정식, 회정식 등
- * 연계관광지 : 솔피성지, 아미미술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삼교호함상공원 등
-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246
- * 예약 및 홈페이지 : 041-353-7541 / <http://www.allmeone.com>

5. 충청남도 청양군 「알프스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알프스마을→천장호 출렁다리→칠갑산천문대

다양한 이색체험과 레저체험을 경험하고
밤하늘의 천체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여행



출처 : 알프스마을

알프스마을



출처 : 청양군청

천장호출렁다리



출처 : 청양군청

칠갑산천문대



출처 : 청양군청

칠갑산

[알프스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짚트랙, 승마체험, 조롱박공예, 박미스트만들기 등
- * 먹거리 : 백반, 버섯전골, 산채비빔밥 등
- * 연계관광지 : 천장호, 칠갑산, 칠갑산천문대, 천장호출렁다리 등
-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 * 예약 및 홈페이지 : 041-942-0797~8 / <http://www.alpsvill.com>

6.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고추장익는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만일사→순창고추장익는마을→장류박물관→로컬푸드특산품점→순창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

순창하면 생각나는 고추장의 특징을 살려 순창고추장
시원지를 돌아보며 전통발효에 대해 알아가는 테마 가족여행



출처 : 전라북도

순창고추장익는마을



출처 : 순창군청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출처 : 전라북도

만일사



출처 : 순창군청

강천산

[순창고추장익는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순창고추장시원마을에서 발효와 친숙해지기(순창고추장담그기체험+ 즉석떡볶이 만들기체험+매직폴리미니 체험)
- * 먹거리 : 산채비빔밥, 돼지바베큐 등
- * 연계관광지 : 만일사, 장류박물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강천산 등
- * 소재지 : 전북 순창군 구림면 산내길 38
- * 예약 및 홈페이지 : 063-653-7117, 010-9015-7881/ www.gochujangvillage.com

7.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꽃마차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드라마촬영장→순천만국가정원→낙안읍성→뿌리깊은나무박물관→순천꽃마차마을

국내 최대의 생태계의 보물인 순천에서 즐기는 전통체험 가족여행



출처 : 순천꽃마차마을
순천꽃마차마을



출처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출처 : 순천시청
낙안읍성



출처 : 전라남도
드라마촬영장

[순천꽃마차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압화체험, 떡메치기, 계절농산물수확체험, 오디초콜릿만들기 등
- * 먹거리 : 시골밥상(정식), 닭백숙, 닭도리탕 등
- * 연계관광지 : 드라마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등
- * 소재지 : 순천시 낙안면 금산길 64
- * 예약 및 홈페이지 : 070-7795-7064 / <http://www.꽃마차마을.kr/>

8. 경상북도 예천군 「삼강주막마을·회룡포마을·출렁다리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삼강주막마을→회룡포마을→예천진호국제양궁장→예천온천→예천곤충생태체험관→출렁다리마을

각각의 명소마다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영원한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는 여행지.



출처 : 삼강주막마을
삼강주막마을



출처 : 회룡포마을
회룡포마을



출처 : 예천출렁다리마을
예천출렁다리마을



출처 : 경북관광공사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삼강주막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떡메치기, 주막체험 등
- * 먹거리 : 막걸리, 모듬전(배추전, 미나리전, 파전 등), 국밥, 잔치국수 등
- * 연계관광지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예천온천, 예천곤충생태체험관 등
-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7
- * 예약 및 홈페이지 : 054-655-3132 / <http://www.3gang.co.kr>

[회룡포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전기스쿠터체험, 농산물체험, 꽃누르미엽서만들기, 황토백자만들기 등
- * 먹거리 : 시골밥상(정식), 수육 등
- * 연계관광지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예천온천, 예천곤충생태체험관 등
-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362
- * 예약 및 홈페이지 : 070-8841-7280 / <http://dragon.invil.org/>

[예천출렁다리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누에고치, 천연염색, 오미자청만들기 등
- * 먹거리 : 태평수(메밀묵), 청포묵정식 등
- * 연계관광지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예천온천, 예천곤충생태체험관 등
-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26
- * 예약 및 홈페이지 : 054-652-7676 / <http://www.출렁다리.com>

9. 경상남도 남해군 「두모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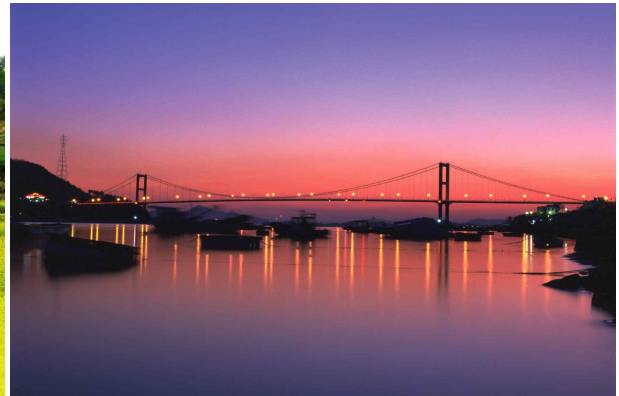
남해대교→충렬사→설천양모리목장→유배문학관→탈예술촌→두모마을→까천다랭이담수비위→이순신영상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거리를 경험하며
문화와 역사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광코스



출처 : 웰촌

두모마을



출처 : 남해군청

남해대교



출처 : 남해군청

양모리학교



출처 : 남해군청

이순신영상관

[두모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씨카약타기(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타는 체험), 계절농산물 수확하기, 갯벌체험
- * 먹거리 : 시골밥상(정식), 멸치쌈밥, 갈치회무침 등
- * 연계관광지 : 남해대교, 충렬사, 양모리학교, 이순신영상관, 유배문학관 등
-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33번길18
- * 예약 및 홈페이지 : 010-8500-5863 / <http://www.du-mo.co.kr>

10. 제주도 제주시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주변 가족여행 코스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제주43평화공원→노루생태공원→절물자연휴양림→사려니숲길→에코랜드

자연과 더불어 재미있고 신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며 전통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여행코스



출처 : 웰촌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출처 : 제주도청

제주4·3평화공원



출처 : 제주도청

사려니숲길



출처 : 제주도청

에코랜드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소개]

- * 추천 체험 거리 : 계절김치담그기, 나무곤충만들기, 고추장만들기, 승마체험, 양먹이주기, 도자기만들기, 손수건염색 등
- * 먹거리 : 인근식당 이용
- * 연계관광지 : 제주4·3평화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에코랜드 등
-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명림로 268-71
- * 예약 및 홈페이지 : 064-723-0261 / <http://wellbing.go2vil.org/>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

- 부실인증 등 2개 민간인증기관 및 영농일지 미기록 등 위반 474농가 적발 -
-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컨설팅) 직원 1명 형사고발 -

《 주 요 내 용 》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정기조사 결과, 인증 기준 또는 인증절차 위반사례 적발

- 인증기준 및 절차 위반 2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6개월) 처분
 - 재배가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한 1개소,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 1개소
- 영농일지 미 기록 등 474농가 인증취소
- 허위 영농일지로 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 형사고발

- 기준 위반 민간인증기관·인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사항 집중관리와 사전예방 노력, 강력한 단속으로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3. 20~4. 29.

(40일간)까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 및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부적합 농가 인증,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 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하였다.

○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농가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하였다.

○ 적발된 민간인증기관은 3~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영농일지 미 기록·미 보관 414농가, 제초제 등 농약사용 60 농가

○ 한편,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다.

□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높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민간인증기관 인증 건에 대해 40% 이상 심사자료(심사보고서·검사성적서 등)를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점검 건 중 30% 이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2중-체크제**로 부실심사 및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 및 역량 강화, 우수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도입*('17)과,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인증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우수 등으로 평가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최소 인력 상향(3→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 시 행정처분 감면 등

□ 더불어, 부실인증 방지 및 인증기준 준수를 위해 농업인, 인증기관 대표자 및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인증농가용 인증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SNS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1,800여명의 생산관리자와 인증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 주관으로 수시 민간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증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2년 1회(6시간)의 보수

교육을 1년 1회(6시간)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며,
-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인증, 철저한 생산과정조사로 인증품의 기준 적합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농가 정기조사 결과

1. 정기조사 개요

- 목적: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조사기간: '16. 3. 20. ~ 4. 29.(40일간)
- 조사대상: 전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소) 및 인증농가

- 조사방법: 지원 간 합동조사반 편성, 교차 점검 등

2. 민간인증기관

- 조사결과: 규정 위반 2개 기관(업무정지 2)
- 주요위반사례
 - 인증 심사절차·방법 위반, 인증기관 지정기준 미 준수

3. 농자재업체 직원 고발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자재업체에 근무하는 ○○○은 개인농가가 작성한 경영관련 기록인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4. 생산과정조사

- 조사결과: 기준위반 474건(영농일지 미기록, 제초제 등 농약 사용 등)
- 주요위반 사례
 - 경영 관련서류(영농일지)를 6개월 이상 미 기록·미 보관(414)
 -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필지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사용(60)

참고 2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지정 현황

구 분	개소	민간인증기관
계	64	
서울	5	(주)오씨케이, 건국대(산), (주)CUC코리아,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사)친환경축산협회
대구	2	글로벌유농인(영), (주)온누리친환경
광주	10	전남대(산), 토지(영), (주)스마일친환경, (주)참사랑 친환경인증센터, 도담친환경(유), (주)이코이드, 해진친환경(영), 호남유기인증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케이, 농업회사법인(주)한국농산업연구소
대전	-	(주)부강테크(휴업)
경기	8	(사)한국유기농인증원,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한경대(산),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네오친환경,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가평농업기술센터,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강원	4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상지대(산), 강원대(산), 농업회사법인(유)한국농심회
충북	5	(주)한국농식품인증원, (주)건국에코써트, 친환경농업연구원, 진천농업기술센터, 충북대(산)
충남	3	연암대(산), (주)BCS코리아, (주)대한인증원
전북	5	(주)성농, (사)자연들농식품인증문화원,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주)지리산인증원, 전북대(산)
전남	9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순천대(산), (주)한국작물연구소, 목포대(산), (주)인증포럼,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사)유기농진흥센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주)친환경인증센터,
경북	4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주)에버그린농우회,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봉화농업기술센터
경남	6	경남과학기술대(산), (재)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경상대(산), 농업회사법인(주)예농, (주)녹색친환경인증센터, (주)우리농인증원,
제주	3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대(산), (사)한솔농림수산물인증센터

미세먼지 원인 규명...환경과학원-나사 대규모 대기질 조사

◇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해 지상·항공·해상 관측 동시 수행을 통한 3차원 입체 관측 추진

◇ 대규모 관측 기반을 통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미세먼지·오존 예보정확도 등에 획기적인 개선 기대

-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한반도 대기 오염 물질을 추적한다.
- 국립환경과학원(박진원 원장)은 한반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나사, NASA) 연구팀과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0여일간 실시한다.
 - ※ KORUS-AQ : KORea-US Air Quality Study
- 이번 공동조사는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 공동조사에는 환경과학원과 나사를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93개 연구팀 총 400여명이 참여한다.
 - ※ 국내 참여 주요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 국외 참여 주요 기관 :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환경부(EPA), 해양대기청(NOAA), 국립 대기연구센터(NCAR), 해군연구소(NRL), 캘리포니아 공대, 아이오와 주립대학,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 (중국) 중국과학원(CAS) 등
-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관측지점 16개소, 항공기 3대, 선박 2대, 위성 5대를 활용하게 된다.

□ 환경과학원과 나사는 지상·항공·해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 위성 자료 분석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 지상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오존 생성과정 파악과 초미세먼지 생성의 전구물질 측정 등을 위해 도심 측정지점에 서울 올림픽 공원, 풍상지역에는 백령도, 풍하지역에는 경기 태화산 측정지점 등 핵심 측정지점 3곳을 운영한다. 이밖에 권역별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해 총 16개 지점에서 지상 관측을 수행한다.

※ 전구물질 : 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

- 항공·해상 관측으로는 외부유입 오염물질 영향 분석과 한반도 상공의 대기 오염물질 농도 분석을 위해 국내와 나사의 관측용 항공기 3대와 국내 연구용 선박 2대를 활용해 조사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재 환경위성 센서를 이용해 2019년 발사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함께 검증한다.

※ 자료처리 알고리즘 : 위성에서 측정하는 에너지를 대기오염물질 농도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S/W)

- 또한, 미세먼지·오존 등을 원격으로 관측하는 장비를 백령도 등 19개 지점에 설치·운영하고 원격측정결과와 환경위성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델링 팀에 제공하여 대기질 예보를 지원한다. 모델링 분야에서는 일별 항공기 관측 경로 수정을 위해 오존과 미세먼지 예보를 수행하고 관측결과를 활용해 미세먼지 예보모델 자료동화 등을 추진한다.

※ 자료동화 : 수치 모델의 초기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모델링 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관측자료를 모델에 이용하는 과정

□ 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최초로 시도되는 한-미 협력 공동조사를 통해 수도권지역의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은 물론, 나사의 경험과 기술 등을 공유해 우리나라의 대기 관측 기술력이 한층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공동 연구 결과가 미세먼지 등의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항공관측과 원격측정장비의 관측 자료는 2019년 발사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조기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이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나사는 고도화된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와 항공관측 결과를 활용해 자국의 환경위성 분석기술을 검증할 수 있어 이번 공동연구는 양국의 대기환경개선과 환경위성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홍지형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공동조사 종료 후 관측 결과 논의를 위한 한-미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관측 결과를 관련 연구자에게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KORUS-AQ 추진계획.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KORUS-AQ 개요

- 추진일정 : 2016. 5. 2. ~ 6. 12.
- 참여연구진 : 국립환경과학원, NASA 및 양국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국내외 93개 연구팀
- 추진내용 : 항공·위성·지상·해상관측 동시 수행을 통한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

※ KORUS-AQ : KOREA-US Air Quality Study

□ 추진 목적

- 예보의 정확도 향상 및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관측 자료 확보
- 과학적 근거로 한반도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제시
- 한반도 전역의 3차원 입체관측으로 환경위성 활용자료 확보

□ 추진경과

- 한-미 환경협력위원회의 환경협력 분야 과제 제안('13.2)
- NASA 관측현장 방문 및 NASA측의 항공관측 제안('13.9, 미국 휴스턴)
-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 공동조사 추진 합의('13.12, 미국 샌프란시스코)
-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 업무협약(MOU) 체결('15.10)
- KORUS-AQ Media Day(4.29) 및 본 측정 수행('16.5~16.6, 93개 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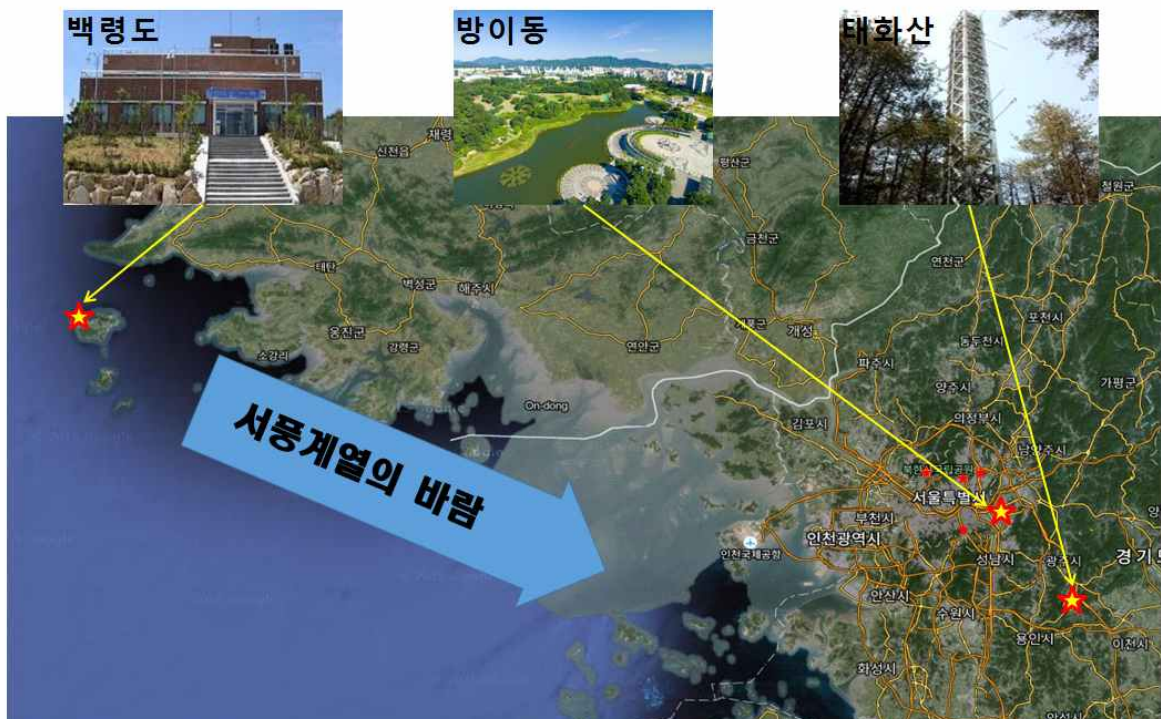
□ 세부 추진 내용

- 지상관측 : (기간) 16.5.2~6.12 (측정지점) 3개 핵심 및 권역별 13개 지점
※ 핵심측정소 : 풍상(백령도 집중측정소), 도심(서울 올림픽공원), 풍하(태화산 생태타워)
(연구진) 국내 49개, 국외 4개 (측정항목) 미세먼지 성분 측정 10개 분야, 가스상 전구물질 측정 16개 분야, 유기입자 조성파악 12개 분야

<지상관측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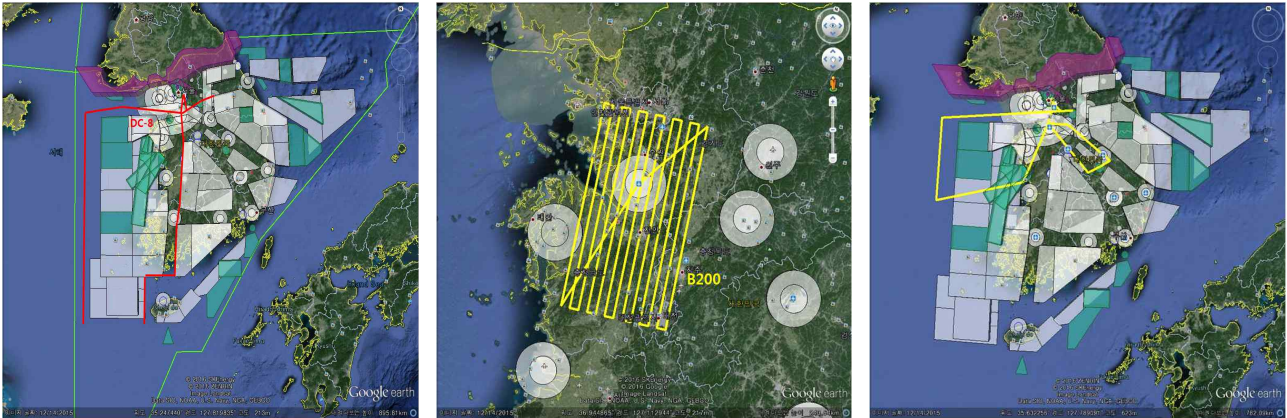
구분/지점	관측지점	위치
핵심 지상관측지점	풍상 (백령도 집중측정소)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도심 (서울 올림픽 공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풍하 (태화산 생태타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수도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중부권	대전시 중구 문화동
	호남권	광주시 북구 오룡동
	영남권	울산시 중구 성안동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화전마을
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서울 (황사감시센터)	서울 종로구 송월동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시 북구 첨단동
제주(고산)	제주 고산 기상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제주(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리
용인	한국외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서울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인천	인하대학교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핵심 지상관측지점



- 항공관측 : (기간) 16.5.2~6.12 (항공기) 과학원 Kingair, 나사 DC-8, B200
(연구진) 국내 7개, 국외 20개 (측정내용) 수도권 국외유입 오염물질 영향
(과학원), 한반도 대기질 현황 및 대기화학반응(DC-8), 환경위성 검증(B200)

<항공관측 경로(안)>



<연구용 항공기>



- 원격관측 : (기간) 16.4~계속 (측정장비) PANDORA, AERONET, LIDAR, 위성
※ 활용위성 : GOCI, MI, OMI, OMPS, MOPIT
(연구진) 국내 26개, 국외 3개 (측정내용) 원격 및 위성관측결과를 활용한
관측 및 모델링 결과 검증, 나사 B200 항공기와 연계한 환경위성 검증

- 선박관측 : (기간) 16.5.2~6.12 (선박) 기상1호(기상과학원), 온누리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국내 5개, 국외 6개 (측정내용) 서해안 지역 대기질 배경농도 및 기상현황 측정

<연구용 선박>



- 예보 : (기간) 16.5.1~6.11 (사용모델) WRF-CMAQ, WRF-Chem 등 6개
(연구진) 국내 7개, 국외 5개 (주요내용) 지상 및 항공 측정을 위한 대기질 예보 지원, 미세먼지·오존 예보의 불확도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 분석

1. NASA와 공동관측을 수행하는 이유는?

- ☐ 한반도 지역 대류권내 대기질 연직분포 파악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우리측과 NASA의 목적이 일치
 - NASA는 1980년 후반부터 국제협력 대기질 관측 수행 경험 다수
- ☐ 단기간 내에 다양한 성분의 자료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장비 탑재가 가능한 대형 항공기 필요
 -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파악 및 환경위성 활용을 위해서는 대류권 내 대기질 성분의 연직분포 파악 필요
 - NASA의 경우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용 항공기 보유

2. 공동관측 이후 추가조사 및 NASA와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 ☐ 계절특성 분석을 위해 여름철 및 겨울철 국내연구진 중심의 추가조사 예정(2017)
 - 여름철 고농도 오존('17.6), 겨울철 미세먼지('17.12) 원인 규명을 위하여 국내연구진 대상의 집중조사를 추진할 계획임
- ☐ 한-미 연구진 합동 데이터 워크숍 개최('16.11월 예정) 및 정례화
 - 금번 공동조사 결과 검토 및 공유를 위해 국내에서 한-미 연구진 합동 데이터 워크숍을 2016년 11월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정례화하여 환경과학원-NASA간 대기관측에 대한 협력을 유지해 갈 계획임

- 전구물질 : 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
- 자료동화 : 수치 모델의 초기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모델링 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관측자료를 모델에 이용하는 과정
- 원격관측장비 : 태양광을 이용하여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연속자동 측정하는 장비로 위성의 관측 원리와 유사함
- 항공기 탑재 환경위성 센서 :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탑재되는 관측 센서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용 관측 장비로 환경위성 자료 검·보정을 위해 사용됨
- 정지궤도 : 지상에서 약 36,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보았을 때 항상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궤도
- 자료처리 알고리즘 : 위성에서 측정하는 에너지를 대기오염물질 농도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S/W)

사회적기업 창업 기본교육부터 착착!

- 201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이번 달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단계별 창업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강의와 실습, 멘토링으로 창업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우는 기본교육과 사업계획서의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중심의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단계별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 시니어분야(50세 이상의 은퇴자)·여성분야(경력단절여성 및 다문화가정 여성 등)는 각 2개소, 해외 진출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국제개발협력 영역과 연계한 글로벌 분야는 1개소, 총 5개소에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 운영기관별 수강생 모집기간, 개강일 등은 아래 표 참고

분 야	운영기관명	문의	수강생 모집 기간	개강일
시니어	상상우리	02-775-3352	5월 3일(화)~ 5월 13일(금)	5월 24일(화)
	언더독스	02-6384-3222	5월 3일(화)~ 5월 18일(수)	5월 25일(수)
여성	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02-761-1800	5월 10일(화)~ 6월 15일(수)	6월 21일(화)
	전남지역발전 포럼	061-283-6881	5월 9일(월)~ 5월 20일(금)	5월 27일(금)
글로벌	비소사이어티	070-8254-3040	4월 21일(목)~ 5월 15일(일)	5월 23일(월)

- 2015년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의 수료생 50여명은 현재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20여명은 1년간의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을 통해 구성된 한 창업팀(팀명: 허티밀)은 20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출전, 글로벌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각 과정당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열린알림방(<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도 된다. 사회적기업에 관심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청소년정책, 가시적 성과 위해 더욱 빈틈없이 챙긴다”

- 4. 29(금)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체계 첫 도입
- 올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부터 시범 적용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

- 모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4월 29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은희 장관 주재로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분석·평가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청소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추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개별사업(중앙, 지자체)*, 대표사업** 및 핵심지표(지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 중앙행정기관(28개) : 246개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792개 시행계획
 -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 중점과제 중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분야 평가
 - ***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 주관)’ 등 기존지표 최대한 활용
 - 분석·평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정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분석·평가실시(5~7월), 컨설팅(8~9월) 등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얻은 분석·평가 결과는 제3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11월)하고,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에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년)에 반영된다.
-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수립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날 함께 심의·확정되는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국정과제인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도 높게 실현할 수 있도록 5개 정책영역, 1,180개 과제(중앙부처 240개, 지자체 940개)를 추진하게 된다.

- 정부는 작년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정책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종합사이트(youth.go.kr)*' 전면 개편('15.10월), 청소년 활동 안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규 운영('15.4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집 주변 활동기관 찾기, 참여활동 기록관리, 예약기능 등 청소년, 학부모 시각에서 구현

** 일일 기상상황, 신고·인증수련활동, 종합 안전점검·평가 결과 등 정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02개소)

- 올해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업·진로 체험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200개 센터) 구축 등

** 검진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혈액검사, 간염 및 구강검사 등)

*** 제2차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시행('16~'18) : 28개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 한편 이날 보고안건으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지원 방안'과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된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16~'18)도 상정돼, 민간 위원 등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들을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으로 ‘실태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강화’, ‘정기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자립역량 강화’, 취업 사관학교(7개 지역) 운영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기에 정착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 “올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12~5.14, 경남창원 CECO), 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8.3~8.9, 대구)가 예정됐을 뿐 아니라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17.8월 개최지 결정)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붙임】 1.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개요
3. 20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붙임 1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6명)

구 분	구 성
위 원 장 (1)	여성가족부 장관
정 부 위 원 (13)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통일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민안전처 차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민 간 위 원 (6)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참고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주요 개편내용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15.5.4. 시행)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

구분	개편 전	구분	개편 후
명칭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명칭	-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 정책 협의 · 자문	기능	- 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 10개 기관 정부위원 - 민간위원 없음	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 14개 기관 정부위원으로 확대 - 민간위원 포함

□ 목적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거시적 운영방향 설계 및 세부 사업 효율성 제고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 4항 (’15.5.4. 시행)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과제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38	229
	2. 글로벌·다문화역량 강화	18	33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13	25
2.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6	44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18	15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14	4
3.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20	65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17	137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24	29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15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	102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15	16
5.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강화	13.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3	11
	14.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	5	57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10
총계		246	792

□ 평가 방법

○ 중앙행정기관 : ①개별사업 평가

①개별사업평가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46개 시행계획('15년 기준) 추진 실적을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	--

○ 지방자치단체 : ①개별사업, ②대표사업, ③핵심지표 평가

①개별사업평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2개 시행계획('15년 기준) 추진 실적을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	--



②대표사업평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15대 중점과제 중 “3-2.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해당하는 포괄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	---



③핵심지표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11개의 핵심지표별 현황을 측정 산식에 따라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이 점수 산출
---------	--

□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대상
개별 사업 평가	1. 사업기획(30점)	- 기본계획에의 부합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적합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사업집행(30점)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예산집행률	
	3. 성과달성도(4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 목표달성률	
대표 사업 평가	1. 정책형성(35점)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전분석,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 1건
		② 정책기반 확보 수준 - 추진체계의 충실성 - 자원배분의 적정성	
	2. 정책집행(30점)	③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④ 정책소통 노력 - 정책소통, 홍보, 교육의 충실성	
핵심 지표 평가	3. 정책성과(35점)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지방자치단체 지표별 실적
	-	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③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⑤ CYS-Net 운영비율*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 (정성평가)* ⑦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⑧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⑨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⑩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⑪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 표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업·진로 체험 강화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을 통해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원 확대(여가부)
-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중·고교 단계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200개 센터) 구축(교육부)
-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9개 이상)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중학교 3개교) 대상 자유학기용 환경교재 보급 추진(환경부)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시설 확충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안전교육 확대(해수부)

○ 청소년들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주요 국제문제 특강 등을 통한 대학생 외교 현안 이해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지원(외교부)
-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180개교) 운영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운영단(17개) 지정·운영(교육부)

주요계획

- ※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중·고교 단계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200개 센터)
- ※ 주요 국제문제 특강 프로그램 참여 : ('15년) 3,957명 → ('16년) 4,500명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특별회의 제안과제에 대한 부처 이행여부 확인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전년도 정책제안 과제 검토 및 활성화 지원

○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 근로권익 상담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연계 확대 및 배달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의 근로 보호 강화(여가부)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상담체계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고용부)

○ 청소년 권리교육 강화 및 기본권 보호

- 부처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실시(복지부)
-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강화(여가부)

주요계획

- ※ 현장도우미 연계 지원 : ('15년) 16,000건 → ('16년) 17,000건
- ※ 성인식 개선 전문강사 인력풀 확충 : ('15년) 2,391명 → ('16년) 2,600명 이상
-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EBS 평등채널 e '인식개선 시리즈' 제작 등)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 가출 및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지원

- CYS-Net 확충(22개소)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 추진
- 청소년쉼터 서비스 특화 및 쉼터내 자율적 생활문화 조성 지원(여가부)
- 가출위기학생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도모(교육부)
- 무의탁 출원생 주거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하우스'와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비즈니스' 사업 실시(법무부)

○ 다문화가족·장애·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및 글로벌브릿지 확대 운영(교육부)
- 중도입국 자녀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강화(법무부)
- 과밀학급(특수) 및 장애학생 원거리 통합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 학교(급) 신·증설(교육부)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동의 없이 연계되도록 법률 개정 추진(여가부)
-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등)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관찰·소년원 퇴소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여가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소년원(대구·청주·춘천·광주)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실시(여가부)

주요계획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15년) 200개소 → ('16년) 222개소
- ※ 다문화 중점학교 : ('15년) 150개교 → ('16년) 180개교
- ※ 글로벌브릿지 : ('16년) 17개교
- ※ 중도입국자녀 조기적응지원센터 33개 지정
-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 ('15년) 148명 → ('16년) 200명
- ※ 특수학교 2개교, 특수학급 500개 신·증설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강화(여가부)
- 성범죄 예방교육 및 위험환경 정비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여가부)

○ 학교폭력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활동 선도를 위한 어깨동무학교 선정·지원 확대(교육부)
- 117상담사가 피해청소년 직접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운영(경찰청)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 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초등생 등 저연령층 대상 맞춤형 중독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확대(여가부)
- 청소년 사이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율참여형 정보윤리학교 운영(미래부)
- 보호관찰소(56개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13개소), 소년원(10개소) 등

위기청소년 대상 사이버 인성 교화교육 강화(3,000명)(미래부)

주요계획

- ※ 수련원 등 자연권 수련시설 358개소 안전점검·종합평가 실시('16.3~11월)
- ※ 인증활동 현장점검 : ('13년) 181건 → ('16년) 1,100건 → ('17년) 약 1,300건
- ※ 아동안전지도 : 전체 초등학교(5,934개교)의 20%(1,200개교) 제작 지원
- ※ 어깨동무학교 운영 : ('15년) 3,109개교 → ('16년) 3,500개교
- ※ 청소년 경찰학교 : ('14년) 19개소 → ('15년) 29개소 → ('16년) 39개소
- ※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 캠프(2박3일) : ('15년) 15회 450가족 → ('16년) 32회 800가족
- ※ 자율참여형 정보윤리학교 : 160개교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통한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확대(여가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정책컨설팅 실시

주요계획

- ※ ('16년)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시범평가 → ('17년) 전면시행

2020년까지 2조 4천억 원 투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 인천 등 6대 광역시 15개 노선 42.4km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그간 31개 사업을 추진 해왔으며,
- 이번에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6~’20)」을 확정하여 계속적으로 도시부내 정체구간에 대해 교통혼잡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의 63.3%(19.2조원)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
-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이 추진되어 완료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82억 원 절감되고, 연간 19억 원의 이산화탄소 환경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15개구간(42.4km, 사업비 2조 4천억 원)에 대해 지자체별로 경제성, 시급성, 교통용량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조사.설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은 국가가 설계비 100%, 건설비·감리비 50% 지원, 지자체에서 건설비·감리비 50%, 용지보상비 100%부담

< 권역별 추진사업 >

(단위 : 개, km, 억원)

권역	구간	연장	사업비	구간명
계	15	42.4	24,603	
인천	1	3.1	2,547	공단고가교~문학IC
대전	2	3.4	1,519	정림중~버드내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대구	3	7.6	4,299	유천교네거리~월곡네거리,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울산	2	5.2	2,311	동천제방 검용도로(우안제), 농소~호계
부산	5	14.9	12,212	엄궁대교, 만덕~센텀(내부순환), 삼화맨션앞 교차로~과정교차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도로, 문전교차로
광주	2	7.9	1,715	월전동~무진로, 용두~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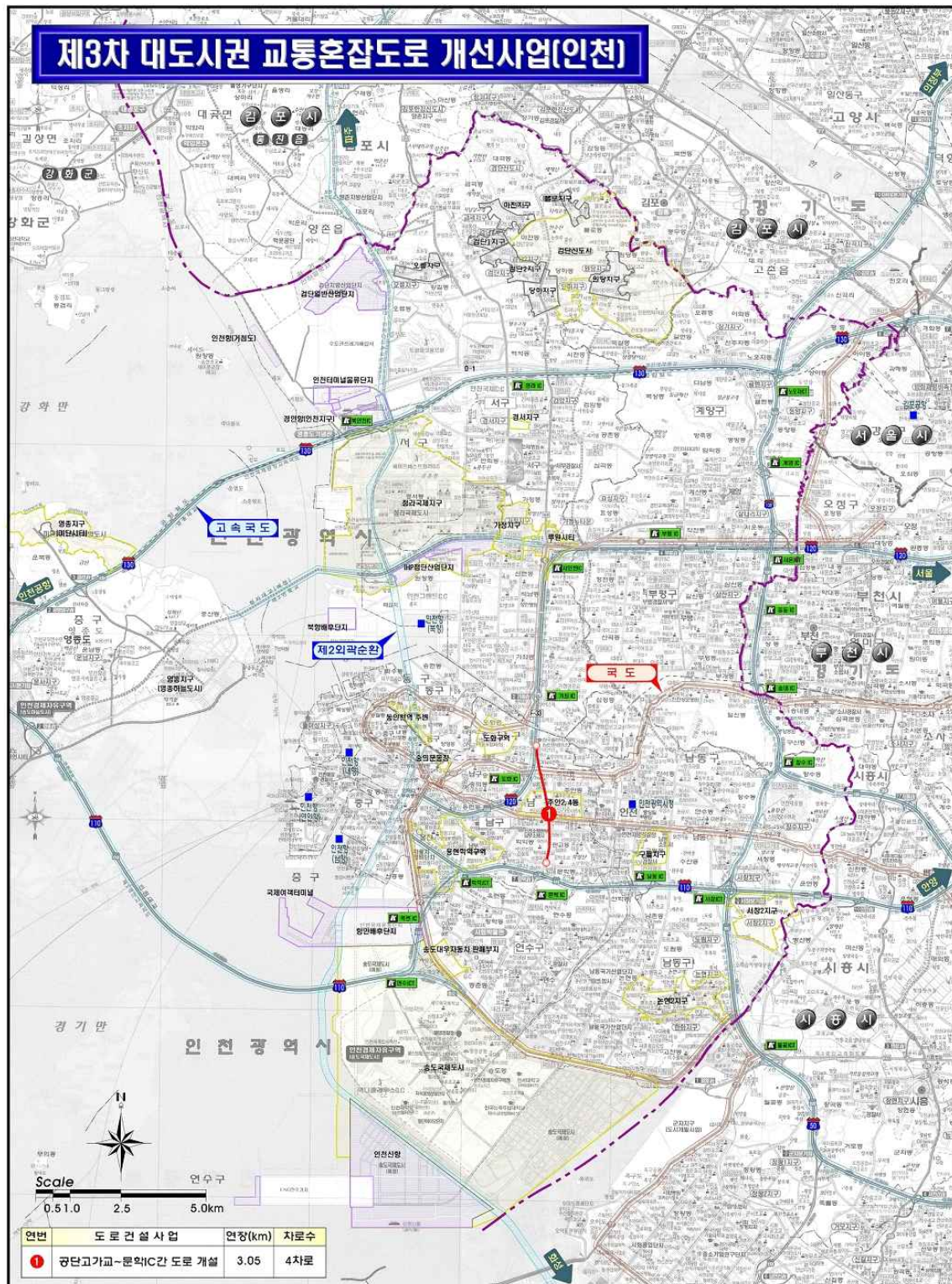
* 붙임 :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현황 및 위치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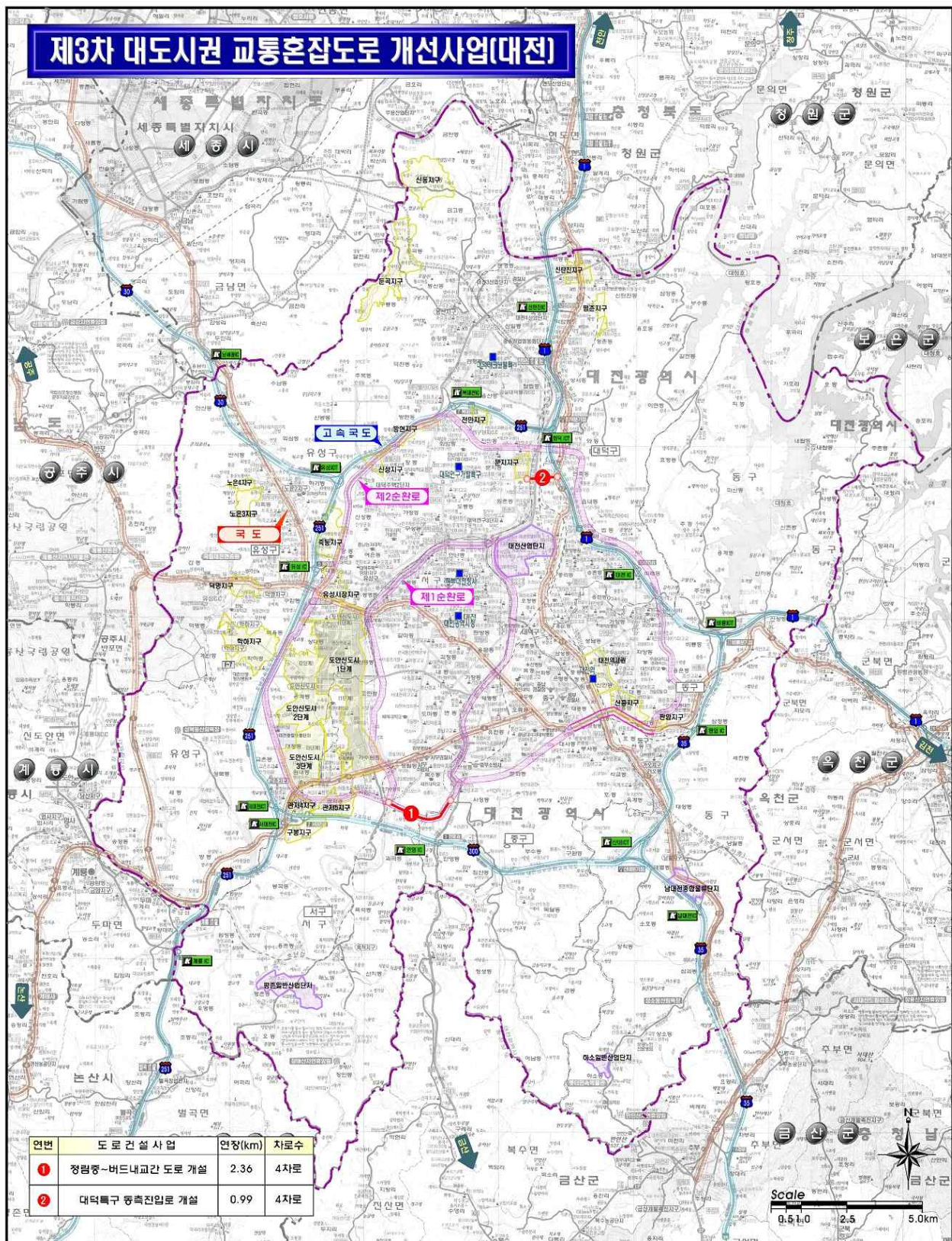
붙임 1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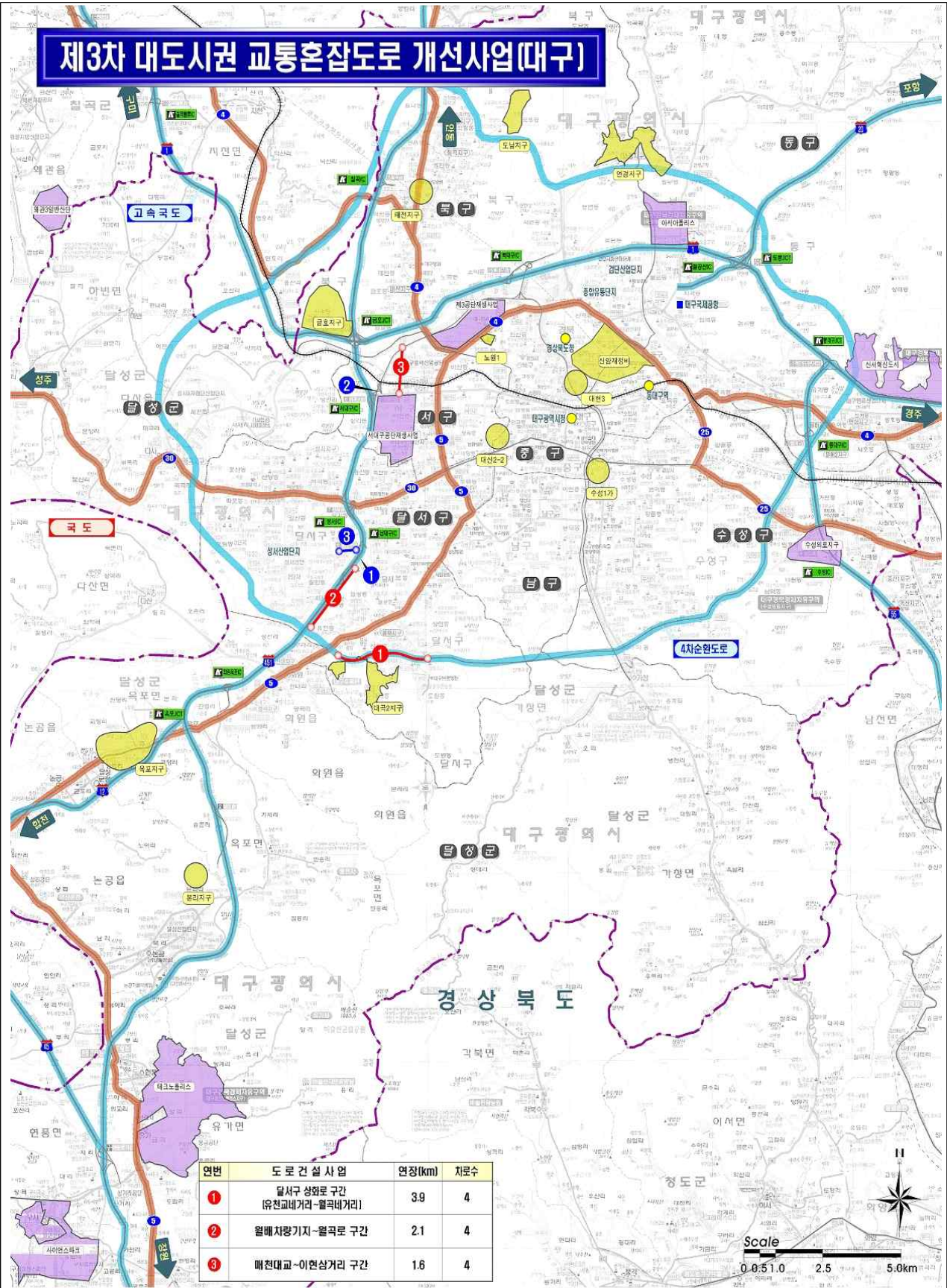
광역시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총사업비(억원)				비고
				총 공사비	조사 설계비	용지 보상비	계	
	합계 (15)	42.4		21,123.5	824.8	2,655.0	24,603.3	
인천	1건	3.1		2,327.8	90.5	128.8	2,547.1	
	공단고가교~문학IC간 도로개설	3.1	4	2,327.8	90.5	128.8	2,547.1	
대전	2건	3.4		1,252.1	48.6	218.4	1,519.1	
	정림중~버드내교간 개설	2.4	4	669.4	25.9	132.0	827.3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0	4	582.7	22.7	86.4	691.8	
대구	3건	7.6		3,447.2	132.1	719.5	4,298.8	
	달서구 상화로 구간 (유천교네거리~월곡네거리)	3.9	4	2,334.0	91.4	-	2,425.4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2.1	4	202.0	6.0	480.2	688.2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구간	1.6	4	911.2	34.7	239.3	1,185.2	
울산	2건	5.2		1,834.5	66.0	410.9	2,311.4	
	동천제방 검용도로(우안제)개설	0.7	4	410.8	11.6	57.7	480.1	
	농소~호계간 도로개설	4.5	4	1,423.7	54.4	353.2	1,831.3	
부산	5건	14.9		11,129.7	444.9	647.2	12,211.9	
	엄궁대교	3.0	6	2,280.5	88.1	268.4	2,637.0	
	만덕~센텀(내부순환)	8.4	4	7,371.1	299.4	50.6	7,721.1	
	삼화맨션앞 교차로~과정교차로	0.4	4	165.7	7.2	19.8	192.7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도로 (봉래산터널)	3.1	4	1,061.0	40.3	308.4	1,409.7	
	문전교차로	0.3	9	251.4	9.9	-	251.4	
광주	2건	7.9		1,142.1	42.7	530.2	1,715.0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6.3	6	1,025.1	38.4	456.3	1,519.8	
	광주용두~담양간 도로개설	1.6	2→4	117.0	4.3	73.9	195.2	

※ 총사업비 :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추정사업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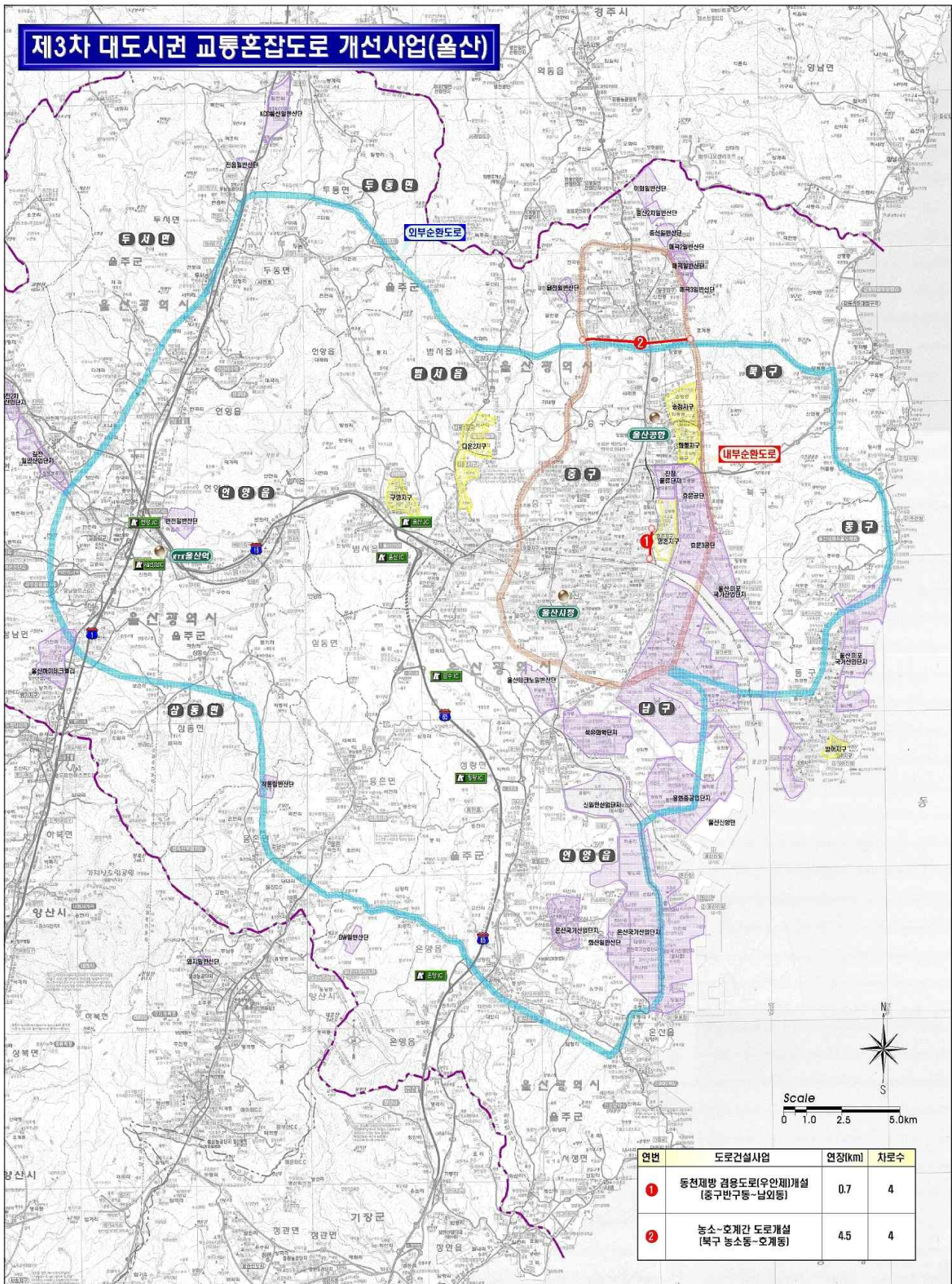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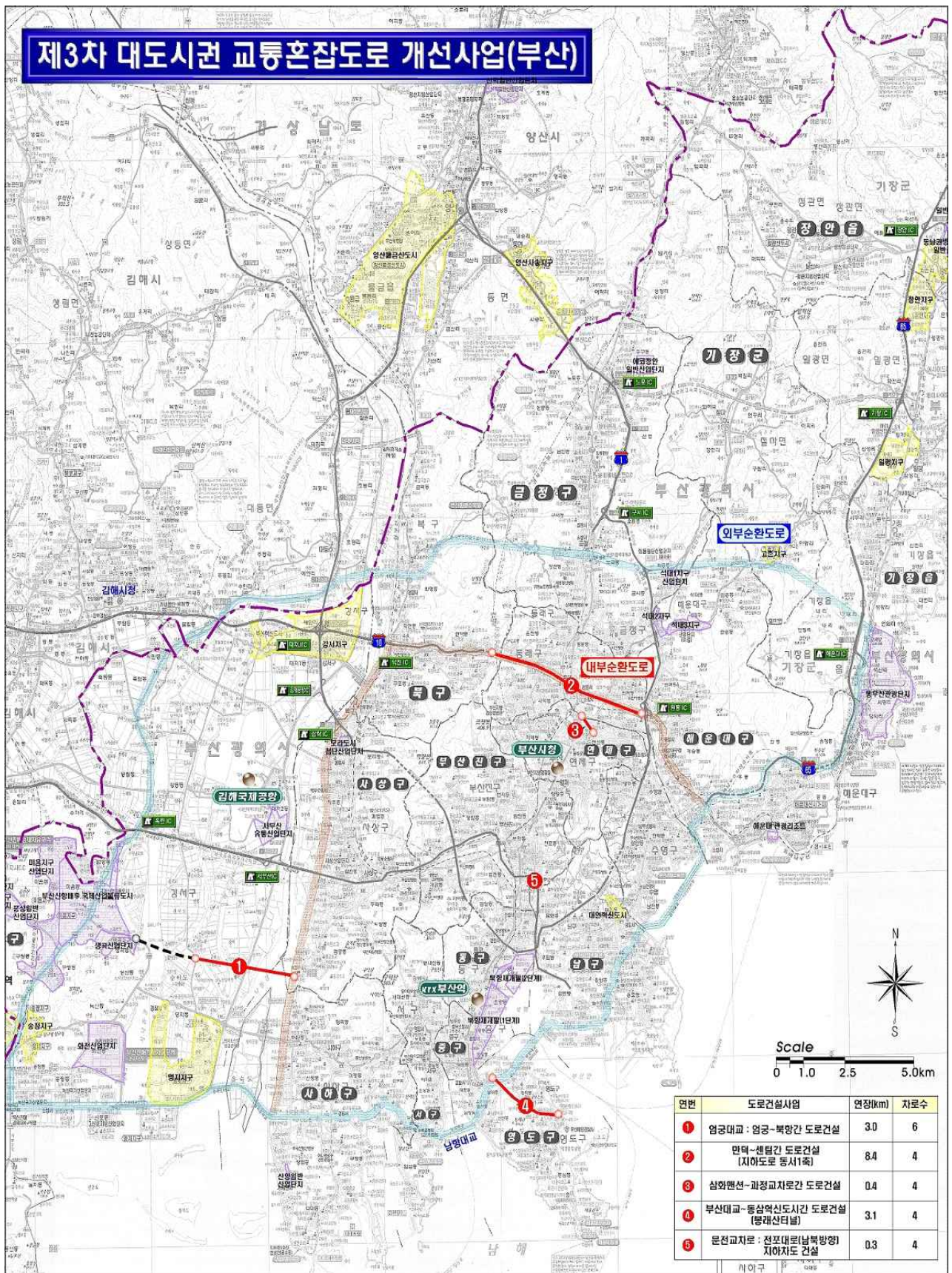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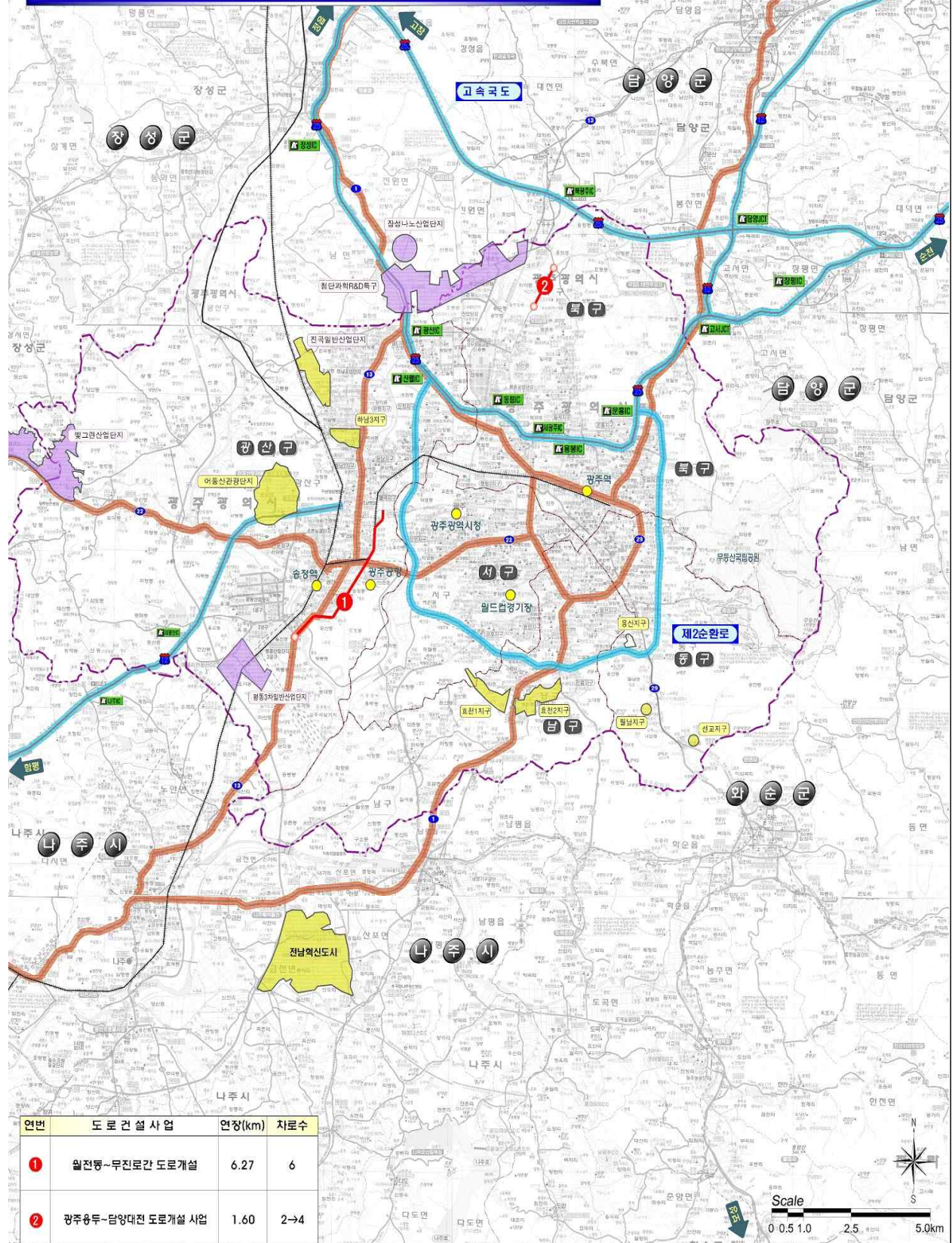
연번	도로건설사업	연장(km)	차로수
①	동천제방 경용도로(우안제)개설 (중구반구동~남외동)	0.7	4
②	농소~오계간 도로개설 (북구 농소동~오계동)	4.5	4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부산)



연번	도로건설사업	연장(km)	차로수
1	영종대교 : 영종-북항간 도로건설	3.0	6
2	면목-센텀간 도로건설 (지하도로 중시1축)	8.4	4
3	삼화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0.4	4
4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건설 (명태신터널)	3.1	4
5	문전교차로 : 전포대로(남북방향) 지하차도 건설	0.3	4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광주)



봄철 어업질서 확립 위해 정부합동 지도단속 실시

- 5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합동 지도·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 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및 지방어업지도선 간 교차승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 기간 중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 230여명이 육상 지도 단속활동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1,271여척은 동·서·남해 해역별로 불법어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380여척을 동원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동참한다.

임영훈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계획

- ◇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지도단속 실시
- ◇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병행

□ 단속 개요

- 기간 : 2016. 5. 1. ~ 31.(1개월)
- 참여기관
 - 주관 : 해양수산부
 - 참여 : 동해·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중앙회
 - 협조 : 법무부(검찰청),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참여 선박 및 인원 : 단속선박 연 1,271척 및 단속인원 228명
 - 해상단속 :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연 1,271척을 해역별(동해·서해·남해)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 육상단속 : 동해·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 연 228명을 지역별로 편성·운영

□ 중점단속 대상

- (공통사항) 무허가, 선형·어구변형, 어구사용 금지구역·금지기간, 포획금지기간·어종, 조업구역,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등
 -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16. 5.1)관련 포획·채취금지 체장 및 금지기간 준수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
- 동해안 : 대게 통발 어구위반 및 금지체장 위반, 2중이상 자망 위반 등
- 서해안 :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부설, 어구사용 금지기간 준수 등
- 남해안 : 중·대형저인망 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 외 어구(전개판) 사용 등